

#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 :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 김세진

정지희

공동연구자 : 김윤희

남진연

방소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06**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 :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 쇄 : 2018년 12월

발 행 : 2018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010 / F. (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가꿈복지직업재활시설

비매품

ISBN 978-89-8234-736-8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 :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김세진 ; 정지희 ; 공동연구자: 김윤희, 남진연, 방소희.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8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736-8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복지[靑少年福祉]

338.5-KDC6  
362.7-DDC23

CIP2018040172

# 간행사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실업률이 10% 이상을 보이며 후기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진로역량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비진학 후기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 등이 제시되며 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자립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기존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취업과 경제적인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부적응, 취업의 어려움 등이 이들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이며, 이로 인한 좌절감, 구직 포기, 일상 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까지 이르게 되는 니트(NEET)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후기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의 예방 차원에서 심리적 수준을 고려한 3단계의 프로그램을 통해 후기청소년의 전인간적인 성장을 돕고자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수준을 고려한 3단계 체계를 통해 전체 후기청소년부터 본 프로그램의 최종 타겟 대상자인 무기력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단계는 보편적인 지원 차원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는 후기청소년과의 개별 인터뷰와 후기청소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후기청소년의 6가지 도움 영역을 파악하여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집단 활동이 어려운 후기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개인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주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님,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 학계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동연구자이신 김윤희 교수님과 본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이 후기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사회 환경에 적응을 도와 실제적인 자립과 긍정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이 기 순

# 초 록

---

최근 한국사회의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후기청소년은 주거, 실업률,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후기청소년에 대한 고용에 관한 정책과 지원이 관련 부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청년고용이나 취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심리·정서적 영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후기청소년 중에서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진로 목표, 계획이 없는 고졸비진학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자존감, 미래관, 사회적지지 등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지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전인간적인 성장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목표수립 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단계이다.

목표수립 단계에서는 국내·외 후기청소년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후기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성에 맞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보편적 차원, 그룹 차원, 개별차원의 3차원 단계적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6명과 후기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실행한 문헌조사, 후기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운영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구성하였다. 도출된 프로그램 구성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1차 보편차원프로그램은 국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지원 사업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총 1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한회기는 20~30분 정도의 강의와 정보전달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19세~24세 미만의 연령)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운영되며 총 6회기로 구성하였다. 1회기는 진로로서 꿈을 위한 목표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목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는 시간 관리로서 하루일과와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탐색 한 후 실천 가능한 시간관리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3회기는 경제로서 경제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카드사용방법과 저축을 통한 돈 관리를 통해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4회기는 대인관계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관계를 연습하는데 있다. 5회기는 취업으로 구직의 과정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하기, 면접 기술 익히기, 직장 생활 예절 배우기, 이직 및 퇴직의 방법 등에 대해 익힐 수 있도록 한다. 6회기는 여가로 여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의 형식으로 보편 차원 및 그룹 차원으로는 불충분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다. 행동활성화 훈련, 문제해결기술훈련, 인지재구성 훈련의 3모듈 8회기로 구성하였고,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제 1 모듈인 행동활성화 훈련은 후기 청소년의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고 활력과 적극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고, 제 2 모듈인 문제해결기술훈련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영역별로 문제해결기술단계 7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 3 모듈인 인지재구성 훈련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적 기술을 다루고 있다.

프로그램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초안을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후기청소년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가운데 유능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자율성, 관계성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우울 총점에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트레스 정도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도, 회기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5인에게 전문가 검토를 받았고, 그 결과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도, 이해도, 유익성에서 4점대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시범운영 결과 및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차원별 목표, 프로그램 구성 내용 또는 활동 등을 수정·보완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목차 |

## I. 서 론 | 1

## II. 이론적 배경 | 4

- 1. 후기청소년의 정의 및 특성 ..... 4
- 2. 후기청소년의 현황 ..... 12

## III. 연구방법 | 31

-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 31
- 2. 프로그램 구성 원리 ..... 33

## IV. 프로그램 개발 | 36

- 1. 프로그램 목표 수립 ..... 36
- 2. 프로그램 구성 원리 ..... 63
- 3. 예비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 65
- 4. 최종 프로그램 ..... 75

## V. 논 의 | 85

## 참고문헌 | 90

## 부록 | 97

## Abstract | 113

## 표목차 |

표 1. 후기청소년 유형별 문제 및 지원방안 .....	15
표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추이(2008~2018) .....	17
표 3. 고졸 취업 청소년의 규모 추이(2000~2010) .....	18
표 4.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고용노동부 사업 개요 .....	20
표 5.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교육부 사업 개요 .....	22
표 6.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여성가족부 사업 개요 .....	24
표 7.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기타 정부정책 사업 개요 .....	26
표 8.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조사 방법 .....	32
표 9.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	38
표 10.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	38
표 11.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 .....	40
표 12. 후기청소년 상담 경험 .....	43
표 13.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구성 요소 .....	45
표 14.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	50
표 15. 청소년 대상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	51
표 16. 후기청소년 개별 심층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	52
표 17. 연구 참여자의 개인 특성 .....	53
표 18. 후기청소년의 과거 프로그램 경험 .....	54
표 19.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전반적인 어려움 .....	56
표 20. 후기청소년 시기의 경험 .....	58
표 21. 전문가에게 받기를 원하는 도움 .....	60
표 22.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	62
표 23.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	66
표 24.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	67
표 25. 기본심리욕구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	69
표 26.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	69
표 27. 우울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	70
표 28. 스트레스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	70
표 29.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71
표 30.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 .....	72

표 31. 프로그램 진행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 .....	73
표 32.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 결과 .....	75
표 33.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주요내용 .....	78
표 34.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	81
표 35. 프로그램 소개 개요 .....	83

## 그림목차 |

그림 1.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	8
그림 2.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 .....	31
그림 3. 후기청소년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 개입의 다중수준 관점 .....	33



# I. 서론

청소년의 자립연령이 20대 후반 혹은 30대로 지연됨에 따라 청소년 자립을 위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자립 지연으로 인해 한 사회의 독립된 성인으로 갖는 의무와 역할에서 유예됨으로써(이광호, 2003; 오찬호, 2010), 특별히 후기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기 연령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청소년기는 정의되고 있으며, 후기청소년은 ‘19세에서 24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로 볼 수 있다.

후기청소년을 연구한 Arnett(2000, 2015)에 따르면 후기청소년은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s)의 시기이며, 거주와 일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성(Instability)을 느끼는 시기이다. 불안정성과 함께 직업, 결혼, 가족에 대한 가능성과 낙관성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독립적인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들이 겪는 불안정성을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후기청소년은 주거, 실업률,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전귀연, 이성기,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후기청소년기에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불안정감과 좌절감을 조절하여 성인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대두되며, 후기청소년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취업이라는 영역에 초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후기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립 및 진로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안되었고(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2017) 성인기로의 전 인간적 발달과 조화를 고려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별히 후기청소년의 취업 후 부적응,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좌절감, 구직 포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제 청소년기는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고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시기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Arnett, 2000). 무업청소년(니트족),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대학재학생, 군 장병 등 후기청소년 유형이 다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와 역량을 고려한 각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서미 등, 2017; 조규필, 2013). CYS-Net을 통한 후기청소년 주호소 문제에 따른 비중 중 진로 및 학업, 정신건강 등 진로 및 정신건강에 대한 것인 것에 반해 전·중기 청소년의 주호소문제는 학업, 대인관계, 컴퓨터·인터넷 사용이었는데, 후기 청소년의 프로그램은 전·중기 청소년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서미 등, 2017).

후기청소년기는 크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을 기준으로 대학 진학자와 비진학자로 나눠 볼 수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는 대학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향후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으며,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진학자의 경우는 사회로 바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성인기로써 준비할 수 있는 지원과 케어가 부족한 현실이다. 비진학 고졸자의 취업을 위해서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를 통해서 능력 중심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주로 대졸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기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초자료는 많지 않다(최기성, 2015).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상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최기성, 2015)에 따르면, 비진학 고졸자들이 졸업 후 직면하게 될 노동시장의 특성, 경력 정도 등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 이들을 위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제공을 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비진학 고졸자가 취업을 선택하게 될 때는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이었으며, 비자발적인 취업 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지연이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진학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이들이 성인기로의 이행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정보제공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이해와 사회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등을 함유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전 인간적인 성장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후기청소년들의 연구 분석을 통해, 이들의 발달 시기의 특성, 욕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차원에서 예방프로그램을 1단계로 하여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인생의 전략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그룹 차원에서의 2단계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비진학 후기청소년들 중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구직포기자나 니트족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을 기반으로 한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환경체제에 대한 지원과 변화의 관점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중재를 의미한다(김영란, 2008; 김진호, 김미선, 김은경, 박지연, 2009; 박지연, 2002; Homer & Sugai, 2000; Janney & Snell, 2000; McCurdy, Mannella, & Eldridge, 2003). 즉, 후기청소년의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은 고등학교 졸업 시점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보에 따른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상담 및 코칭 등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청소년의 인생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후기청소년 중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매뉴얼 및 교구재를 개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후기청소년의 정의 및 특성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단계와 구분은 상이하하며, 특히 20세기 중반이후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청소년이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기의 시작은 미뤄지고, 청소년기는 연장되고 분화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후기청소년은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분화되면서 생겨난 결과이다. 후기청소년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이라 명명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청(법률, 규범, 가치, 문화)과 당사자들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청 등은 청소년기, 성인과 구별된다. 후기청소년 개념의 도입은 현대사회의 성장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며, 과거에는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주로 20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자립연령이 20대 후반 혹은 30대로 이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간 연장과 진로 및 직업 획득, 결혼 연령대가 지연됨에 따라 청년의 청소년화 경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후기청소년의 개념이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전상진, 정주훈, 2006).

후기청소년을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학문 영역이나 정책 내용, 국가별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Keniston(1968)이 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후, 일반적으로 후기청소년기는 19세에서 25세를 지칭한다(전상진, 정주훈, 2006; Hurrelamann, 2006). 일부 연구자들은 후기청소년을 20대 대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표현하며, 현재의 20대들은 단지 투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호칭이 대학생으로 변한 것 외에 청소년과 다른 삶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이들은 사회적 진출을 유예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오찬호, 2010). Sullivan은 심리적 발달에 따라 유아기부터 후기청소년기까지의 상호작용 욕구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중 후기청소년기는 17, 18세부터 20대로 구분하였으며, 이 시기는 초기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 시기로 성인사회로 통합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로 보았다(조아미, 2007).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는 본 법령을 토대로

신체적·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 등 인간의 발달적 특성과 공교육 등의 사회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을 초기청소년(9~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소년(19~24세)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기와 청소년기에 속하지 못한 후기청소년기의 특징을 Arnett(2000, 2015)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후기청소년기는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s)의 시기이다. 후기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다양한 삶의 옵션들을, 특히 사랑과 일에 있어서 검토해본다. 사실 이 시기는 사랑, 일, 세계관의 측면에서 정체성을 탐색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하다. 둘째, 후기청소년기는 사랑, 일, 거주 등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성(Instability)을 느끼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거주가 자주 이동될 가능성 많다. 대학원 진학, 대학 진학, 취업 등으로 인한 이동이 있기에 불안정하게 느끼게 된다. 셋째, 자기중심성(Self-Focus)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때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들처럼 무책임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제멋대로의 행동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성인이 갖는 가정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 없고 청소년과는 달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후기청소년들은 대학에 가는 것,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수업을 듣는 것 등 대부분의 결정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넷째, 가능성(Possibilities/Optimism)이 많은 시기이다. 즉 희망이 많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기회를 가지는 시기로서, 미래에 대해 많은 꿈을 가지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아직 현실생활에서 자신의 꿈을 시도해본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래를 볼 때 만족한 직업, 사랑스런 결혼, 행복한 아동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들은 중간 낀 느낌(Feeling In-Between)을 갖는다. 미국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당신은 성인이라고 느끼는 가?’라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는 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는 모호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모색기의 상당수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아직은 완전히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완전한 성인으로도 인지하지 않는다. 사실 성인기는 이러한 중간에 낀 느낌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고 결정을 독립적하며, 재정적으로 독립될 때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Arnett, 2015). 이러한 특성에 기반을 두어 Arnett(2015)는 후기청소년기를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후기청소년들은 가능성과 불

안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으로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기 이행으로의 필수 단계인 자아정체성의 대한 고민 등은 사회경제적인 원인 등 다양한 이유로 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이고 제도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을 경험하게 되는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생의 과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에만 입학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되어온 청소년들은 정작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의 현안으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후기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2017년 기준 국내 15~29세 인구 928만 2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390만700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42.1%로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장근호, 2018).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후기청소년들의 삶은 한국사회의 주거, 실업률이나 부채,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 사회 경제적 구조의 영향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 세대 간, 세대내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성인으로 갖는 의무와 역할의 유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오찬호, 2010; 이광호, 2003) 후기청소년들의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 부적응 문제 심각해지고 있다(전귀연, 이성기,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후기청소년에 대한 고용에 관한 정책과 지원이 관련 부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 정책이 청년고용이나 취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심리·정서적 영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은 후기청소년이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 이라고 밝히며 자기탐색 및 이해를 위한 진로상담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취업자 및 미취업상대가 경과될수록 자존감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 국가포털 통계청 조사의 고의적 자해(자살) 결과는 2017년 인구 10만명당 10~14세 1.5명, 15~19세 7.2명에 비해 20~24세는 13.3명으로 초기청소년에 비해서는 10배 넘는 비율, 중기청소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청소년 중 보호체계가 유약한 후기청소년의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들이 후기청소년기의 불안정감과 좌절감을 조절하여 성인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정의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와 사회적 관점의 변화 속에서 다소 차이를 갖는 내용으로 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 까지 교육적 관점에서는 졸업한 당해 연도라는 시간 개념과 대학 진학여부라는 관찰시점의 상태를 준거로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신세호, 강무섭, 민무순, 송혜순, 1992)을 대학 비진학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교육적 관점에 대학 진학여부와 취업상태라는 기준을 더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한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으로 간주하였으며, 재수생과 구분하기 위하여 ‘무직 청소년’으로 칭하기도 하였다(김지경, 이광호, 2013 재인용, 최종희, 1985). 이와 같은 관점들은 졸업 후 시간의 경과를 비롯한 연령범주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학력을 취득한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는 등 시점과 정규학교 졸업으로 한정하는 정의라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들어 연령의 범주와 정규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민찬, 2013; 김지경, 이광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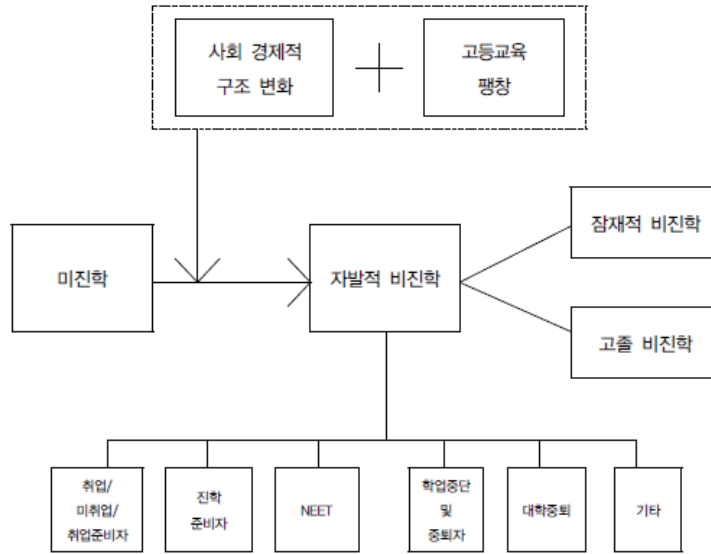


그림 1. 비진학자 개념과 범주

윤민중, 김기현, 한도희(2015).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p.20에서 인용됨.

### 1-1) 교육정책 분야에서의 고졸 비진학자

초기 교육정책 분야에서 ‘비진학자’는 일반적으로 학령인구 중 정규기간학제에 속하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자를 지칭하며, 일차적으로 학교 단계 중 어느 단계를 재학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1990년 중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고, 고교 평준화 등의 정책 시행 이후 고등학교 비진학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비진학자’에 대한 관심은 고등교육기관 비진학자로 쏠리게 되었다. 그에 따라 ‘비진학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연도에 진학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신세호, 강무섭, 민무순, 송혜순, 1992, p.23), 즉 고졸 비진학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고졸 비진학자 집단은 학교 단계별로 구분하는 방식 이외에 상급학교 진학의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입학 당시 상급학교 진학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실업계 학생들은 자발적인 비진학자 집단으로, 대학 진학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일반계 학생들은 타율적인 비진학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신세호, 강무섭, 민무순, 송혜순, 1992). 이러한 분류는 고졸 비진학자 집단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므로 단일 시각으로 고졸 비진학자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50%~60%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자발적/타율적 고졸 비진학자 집단 분류는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단지 고졸 비진학자 집단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주장만 의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통상적 개념으로 교육정책 분야에서 고졸 비진학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고졸 비진학자의 개념과 범주는 최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2조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 분야에서 고졸 비진학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개념과 범주가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노동·고용정책 분야에서의 고졸 비진학자

전병유와 이상일(2003)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층을 ‘고졸 미진학자’로 정의하면서,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였다. 정인수, 남재량 및 이승후(2006)는 고졸 이하 청년층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학력 상태에 따라 순수 소졸, 대학 재학, 대학 휴학, 대학 중퇴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 고용정책 분야에서는 비진학자 중에서도 니트(NEET)의 존재에 크게 주목하였다. 남재량(2006)은 정규교육, 직업,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미혼이며, 가사나 육아를 하지 않는 15세~34세의 청년으로 니트를 정의한 바 있다. 오민홍(2007)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정규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 20세~29세 청년층을 니트로 정의하고, 실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이들 중 지난 한 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를 니트로 간주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2007)에서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니트를 정의하였는데, 경제활동조사 기준을 사용하여 15세~29세 이하 개인 가운데, 정규교육 기관이나 입시 학원 등에 통학하는 자나 육아·심신장애·군입대대거결혼 준비 등의 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이들이 한국형 니트에 해당한다. 단,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통학하는 경우도 한국형 니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한국형 니트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2008) 연구자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세~29세 청년 중, 미혼이며 정기교

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으로 니트를 정의하고, 구직희망여부를 기준으로 구직 희망 니트와 구직 비희망 니트로 분류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성균관대 인적자본개발(HRD) 센터(2009)의 공동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한국형 니트 정의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니트의 하위집단을 네 가지, 즉 전통적 실업자, 고시족이나 공시족을 포함하는 함정형,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한 현실회피형, 구직 무급종사자와 가사노동자를 포함하는 가족노동형 니트로 유형화하였다.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2차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고졸 비진학자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 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15세~29세 청년 중 고졸학력자로 정의한 경우가 다수이다. 윤형한과 신동준(2012)의 연구에서는 고졸학력의 정의를 학력과 수학여부(졸업, 중퇴, 휴학, 재학)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정의하였는데, 순수고졸자와 대학 중퇴자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노동고용정책 분야에서의 고졸 비진학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고졸 학력자 전체 집단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학력에 연령을 더하여 고졸 이하 또는 고졸 청년층으로 범주화되기도 하였으며, 니트 또는 취업자와 같이 고졸 비진학자 집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집단에만 주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졸 비진학자와 관련된 노동고용정책 분야의 연구들이 고졸 비진학자 집단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특성

### 2-1) 비진학 사유에 대한 이론적 관점

사회계층화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들을 사회적 선발과정인 대학 진학경쟁에서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탈락한 사람들로 간주하며, 선발과 탈락의 과정은 산업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본다(김지경, 이광호, 2013; 신세호 외, 1992). 대학 비진학 사유를 개인의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기능론적 관점과는 달리,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힘 있는 소수만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있으므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 사유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김지경, 이광호, 2013).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인적자본이론과 같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 개인적인 접근의 이론과 통계적 차별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과



같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조민수, 2009).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 즉 청소년 개개인이 갖는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취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통계적 차별 이론이나 노동시장분절이론에서는 이미 노동 수요측면에서 차별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계층과 같이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이정은, 2006; 조민수, 2009). 대학 비진학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간주하는 사회 계층화이론의 기능론적 관점과 노동시장이행이론 중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하여 고교 졸업 후 진로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김대연, 강경찬, 1995; 송민경, 2009; 신희경, 김우영, 2005; 안선영, 장원섭, 2009; 오석영, 2012; 오현석, 배진현, 이상은, 정현진 2010; 이병석, 1992; 임천순, 정태화, 이광호, 1992)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이 갖는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학교 성적이 진로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업 성적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과 타고난 재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사교육과 같은 요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들(김경근, 2005; 윤형호, 강민정, 2008; 김영철, 2014)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계층화의 기능론적 관점이나 인적자본의 이론은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사유를 설명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 2-2) 비진학 영향요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 청소년이나 이들의 상황은 학문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OECD국가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 또한 고등교육과정으로 진학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5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b) 수준으로, 고등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비중에 큰 차이가 없고, 고등교육으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슈가 된 다거나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목받는 이슈는 대학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실증분석의 연구들은 그 간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 대학 진학 또는 비진학을 이분법적으로 가르킨 어려우나, 대학 비진학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한계로 인하여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대학 비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역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 특성과 가족배경, 학교 교육이 영

향요인으로 포함되었다.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과 개인의 장래 혹은 미래와 관련된 기대수준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성별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김기현, 방하남, 2005; 김경근, 변수용, 2006; 김영철, 2014; 채창균, 2009; Alexander and Eckland, 1975)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구인회, 김정은, 2015; 류방란, 김성식, 2006)에서는 성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도 있어 성별의 영향력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학생 개인의 장래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의 경우, 기대수준이 높을수록(김경근, 변수용, 2006; 김위정, 김양분, 2013; 김영철, 2014)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높다. 가족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SES)가 주요 변수가 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가 갖는 교육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Sewell(1971)의 연구(김영철, 2014 재인용)를 비롯하여, 이후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학력이나 부모의 직업지위, 가정의 소득수준 등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학에 비진학하기 보다는 대학에 진학 할 가능성이 높음(구인회, 김정은, 2015; 김경근, 변수용, 2006; 김기현, 방하남, 2005; 김영철, 2014; 김위정, 김양분, 2013; 류방란, 김성식, 2006; 방하남, 김기현, 2002; 양정호, 2012, 채창균, 2009; Cameron & Heckman, 1998; 2001; Carneiro & Heckman, 2002; Sewell, 1971; Karabel, 1977; Halsey, Heath & Ridge, 1980)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소재지나 학창시절 거주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김경근, 변수용, 2006; 방하남, 김기현, 2002; 양정호, 2012)도 수행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하다. 재학했던 학교의 소재지나 거주지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으나, 지역의 규모(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대학 진학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한 연구들(김영철, 2014; 류방란, 김성식, 2006)도 있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과 관련해서는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보다 대학 진학할 확률이 높으며(김경근, 변수용, 2006; 김기현, 방하남, 2005; 김영철, 2014; 김위정, 김양분, 2013; 양정호, 2012), 개인의 학업성취 혹은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진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높다(구인회, 김정은, 2015, 김경근, 변수용, 2006, 채창균, 2009).

## 2. 후기청소년의 현황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에서 24세’인 청소년은 전체 9,217,231명의 청소년 중에서 44% 해당하는 4,051,120명으로 조사되었으며(통계청, 2016), 청소년의 수는 급감하고 있

지만 후기청소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24세의 생활 및 의식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변화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은 초중기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용비율을 살펴보면, 전중기청소년의 상담이용비율은 95.3%이며 후기청소년의 상담이용비율은 4.7%에 불과하다.

후기청소년 집단은 연령보다는 현재 상태에 따라 이질성이 높은 다분화(multi-differentiation)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재학생과 졸업생, 취업자와 미취업자, 구직활동자와 비활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소득과 같은 계층의 기준, 국·공립대학, 전문대학 등의 대학의 유형, 서울 등 지역의 기준까지 고려한다면 후기청소년을 둘러싼 이슈에 따라 다 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a). 따라서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있어서 후기청소년 집단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슈별 자립지원 등 정책지원을 함에 있어 집단 내 이질성과 세부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a)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유예생과 구직비활동자와 구직활동자를 포함하는 졸업미취업자는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 공통적으로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니트족과 같은 구직비활동자의 경우, 진로성숙도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의 경우 자존감, 긍정미래관, 진로성숙도,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을 나타냈다. 더불어, 졸업미취업자가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으로, 초·중·고·대학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자기탐색 기회의 부족과 자기탐색 시간의 부재가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도 본 집단을 하나의 유형으로 하여 모형개발 및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2015년 전체 재적학생 수는 3,274,593명으로, '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교육부, 2016), 2015학년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고 특히 전문대학교 및 지방사립대 등 학업중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 또한, 학벌사회 및 취업공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 1, 2학년 학생 중 반수, 편입, 대학중퇴 시도,

휴학이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학교 재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등록금 부담 및 학자금 대출 상황을 위해 학업에 높은 수준으로 방해가 되는 정도의 장시간 근로 중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a).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학이라는 변화에 신규학기의 시작이라는 또 다른 변화가 더해짐에 따라 다른 학년에 비해 혼란과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박정희, 김홍석, 2009)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국내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30.2%)문제를 호소하였다. 전문대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생에 비하여 낮은 사회적 인식과 대우 등으로 열등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민, 2013). 군복학생의 경우, 복학 이후 소외감 및 관계 부적응을 경험하며 변화된 교과과정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하며(노혜림,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 2015), 군대 내에서의 폭력이나 사고 목격과 같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복학 이후 우울, 자살사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Hourani, Williams, & Kress, 2006). 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의식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에 따르면, 대학생 중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34.7% 정도이며,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신입생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동시장 고용 여건의 악화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는 졸업유예자의 경우 외부환경 요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음에 따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경우 성인, 청소년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며 혼란을 겪고 있으며, 대학입학 후 목표상실로 인해 생애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대학상담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학생상담센터는 2016년 전체 대학 432개 중 43.9%에 해당하는 190개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교육통계연보, 2016) 아직 대학생의 심리·정서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EBS, 2016).

표 1. 후기청소년 유형별 문제 및 지원방안<sup>1)</sup>

구분	특성	지원방안
무업 청소년 (니트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li> <li>-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성숙도 및 자존감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li> </ul>
취업 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유예생, 졸업 후 구직활동자를 포함</li> <li>-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가장 취약</li> <li>-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li> <li>- 특히, 취업준비생 집단 중 고졸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탐색, 진로탐색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li> <li>- 졸업미취업자 대상 취업지원 및 복지지원서비스 연계 강화</li> </ul>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 중, 고졸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낮은 노동권 인지 수준과 대처방법이 미흡</li> <li>-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필요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몰려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압도적, 직무몰입도에 있어 낮은 수준</li> <li>- 근로조건 불만족, 고용계약만료 외,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비전 부재'의 사유가 이직 및 퇴사에 가장 큰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및 노동권 인지 수준 향상 교육 제공</li> <li>- 진로 성숙도 관련 프로그램 제공</li> </ul>
대학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벌사회 및 취업공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li> <li>- 대학 1-2학년생 반수, 편입, 대학중퇴 시도, 휴학이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탐색 및 개발 집중 지원</li> </ul>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3, 2015a)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수도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1만 5천 명 정도 고졸 비진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0%가 비진학 및 미취업상태 이며, 고졸 비진학자중 취업자가(68.7%), 진학·취업준비자(12.9%), 니트족(12.3%), 구직자(6.1%)를 차지한다(통계청, 2013). 이들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

1) <표 1> 내용 중 무업청소년, 취업준비생, 취업자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2013)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2015)에서, 대학재학생 내용은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2012)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후기청소년지원방안 연구(2017)'에서 재인용, p10.

지 않거나 진로 목표, 계획이 없었던 경우 니트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니트족과 취업준비자 집단이 가장 취약한 상태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의식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존감, 미래관, 사회적지지 등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안선영, 장원섭, 2009), 그중에서도 니트족의 경우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부정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현황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에서 24세’인 청소년은 전체 9,217,231명의 청소년 중에서 44% 해당하는 4,051,120명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6).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수도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1만 5천 명 정도 고졸 비진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0%가 비진학 및 미취업상태 이며, 고졸 비진학자중 취업자가(68.7%), 진학·취업준비자(12.9%), 니트족(12.3%), 구직자(6.1%)를 차지한다(통계청, 2013). 이들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진로 목표, 계획이 없었던 경우 니트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니트족과 취업준비자 집단이 가장 취약한 상태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의식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존감, 미래관, 사회적지지 등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안선영, 장원섭, 2009), 그중에서도 니트족의 경우 고졸 비진학 청소년 하위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부정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2) 고졸 비진학 청소년 및 취업 청소년의 규모 추이

### (1)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추이

2008년 이후 10년 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얼마나 존재하고, 그들 중 취업한 청소년의 규모와 추이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8년에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12.1%였으며 2011년까지 일반고의 비진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다가(2011년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 24.8%) 2015년까지는 다소 감소되는 추세였고(2015년 일반계고 비진학자 비율 21.1%) 2016

년부터는 22%대의 비율로 보였다.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는 2008년에 158,408명으로 이 중 비진학자의 비율은 27.1% 비중이었으며, 201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전문계고 전체 졸업자의 52.6%인 74,590명이 비진학자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외 고등학교의 분류가 세부적으로 개편되어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졸업자의 비율에 따른 비진학자를 살펴보았다. 2014년 이후 일반 고등학교 외의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에서의 비진학자의 비율은 48.8%에서 52.7%까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졸업자의 50%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비진학자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일반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에서 모두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 중 무직상태의 비진학 후기청소년이 증가했는지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추이(2008~2018)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비진학자	
	일반	전문계 등*	일반	전문계 등*
2008	423,513 (100.0)	158,408 (100.0)	51,411 (12.1)	43,001 (27.1)
2009	424,888 (100.0)	151,410 (100.0)	64,098 (15.1)	40,085 (26.5)
2010	477,470 (100.0)	156,069 (100.0)	88,377 (18.5)	45,071 (28.9)
2011	495,644 (100.0)	152,824 (100.0)	123,083 (24.8)	55,424 (36.3)
2012	490,202 (100.0)	146,522 (100.0)	116,771 (23.8)	66,054 (45.1)
2013	489,423 (100.0)	141,774 (100.0)	110,133 (22.5)	74,590 (52.6)
2014	453,046 (100.0)	179,937 (100.0)	96,321 (21.3)	87,845 (48.8)
2015	442,590 (100.0)	172,872 (100.0)	93,340 (21.1)	86,472 (50.0)
2016	437,299 (100.0)	170,299 (100.0)	96,144 (22.0)	87,457 (51.4)
2017	419,461 (100.0)	164,147 (100.0)	95,227 (22.7)	86,458 (52.7)
2018	407,600 (100.0)	158,945 (100.0)	91,010 (22.3)	80,581 (50.7)

\* 2014년 이후 전문계 등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합산하여 산출함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2) 고졸 취업 청소년의 규모 추이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 추이에 이어 표 3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취업한 청소년의 규모 추이를 고교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육통계연보 자료에서는 고교 졸업 후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의 상태를 취업자, 입대자, 기타(무직, 미상, 특수학교 전공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학생 수는 2008년 3,434명(비진학자 중 비율 3.6%)에서 2018년 8,756명(비진학자 중 비율 5.1%)으로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수가 2008년 94,412명에서 2018년 171,591명으로 늘어난 비율보다는 낮으나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른 추세로 전문계(2014년 이후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합산) 고등학교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인원은 2008년 30,036명(비진학자 중 비율 31.8%)에서 2018년 43,603명(비진학자 중 비율 25.4%)로 인원수로는 증가로 보이나 비진학자 중 비율을 살펴보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아닌 기타(무직, 미상, 특수학교 전공자)에서의 2008년 일반 고등학교의 비진학자의 수는 47,727명으로 비진학자 중 비율은 50.4%였고, 2018년은 81,770명으로 비진학 중 비율은 47.7%로 2008년 비교시 인원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진학자 중 비율은 감소했다. 비진학 청소년 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무직 및 미상을 포함한 기타의 비율이 2008년 12.8%(12,040명)에서 2018년 21.2%(36,415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중 비진학자의 인원과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일반 고등학교의 취업한 비진학자 인원과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진학자 중 기타에 속해있는 무직자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비진학자 중 취업하지 않고 진로를 모색하고 있거나 진로를 포기한 후기 청소년의 추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고졸 취업 청소년의 규모 추이(2008~2018)

(단위: 명, %)

연도	고졸 비진학자	취업자		기타 (무직, 미상, 특수학교 전공과)	
		일반계	전문계 등*	일반계	전문계 등*
2008	94,412 (100.0)	3,434 (3.6)	30,036 (31.8)	47,727 (50.4)	12,040 (12.8)
2009	104,183 (100.0)	3,061 (2.9)	25,297 (24.3)	60,634 (58.2)	13,826 (13.3)
2010	133,448 (100.0)	4,266 (3.2)	29,916 (22.4)	83,571 (62.6)	14,290 (10.7)
2011	178,507 (100.0)	5,359 (3.0)	35,698 (20.0)	117,101 (65.6)	18,409 (10.3)



연도	고졸 비진학자	취업자		기타 (무직, 미상, 특수학교 전공과)	
		일반계	전문계 등*	일반계	전문계 등*
2012	182,825 (100.0)	5,014 (2.7)	48,046 (26.3)	111,236 (60.8)	16,956 (9.3)
2013	184,723 (100.0)	5,297 (2.9)	50,146 (27.1)	104,229 (56.4)	23,662 (12.8)
2014	184,166 (100.0)	8,958 (4.9)	52,310 (28.4)	86,749 (47.1)	34,946 (19.0)
2015	179,812 (100.0)	9,394 (5.2)	51,976 (28.9)	83,396 (46.4)	34,074 (18.9)
2016	183,601 (100.0)	9,623 (5.2)	52,259 (28.5)	85,963 (46.8)	34,604 (18.8)
2017	181,685 (100.0)	8,942 (4.9)	53,842 (29.6)	85,871 (47.3)	32,103 (17.7)
2018	171,591 (100.0)	8,756 (5.1)	43,603 (25.4)	81,770 (47.7)	36,415 (21.2)

\* 2014년 이후 전문계 등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합산하여 산출함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 3) 후기청소년 정책현황

#### (1) 국내 후기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는 저소득 취업계층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상담을 받거나 교육 중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성공을 돕고 있다.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거나, 동일 연령 취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학점 인정, 교육무료제공,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대생을 제외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위한 입직 기간을 단축하고자 돕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청소년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은 많으나, 취업 이전의 개인의 동기 수준을 높이거나 인생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표 4>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고용노동부 사업 개요

no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1	취업성공 패키지 II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상담, 훈련비지원, 프로그램참여·훈련참여 취업성공 수당 지급</li> <li>-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취업성공 및 빈곤탈출 촉진</li> </ul>
2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만15~34세 미취업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mismatch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입직 유도</li> <li>- 참여자에게 1일(5시간)~5일(40시간) 연수프로그램 참가비 지원</li> <li>- 운영기관에게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li> </ul>
3	청년내일 채용공제	만15세~34세이하 정규직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li> <li>-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li> </ul>
4	청년취업 아카데미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무료수강, 학점 인정(협약대학에 한함), 취업연계 지원</li> <li>- 운영기관 : 교육비 지원</li> <li>-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 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li> </ul>
5	재학생 직무체험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주 전공이 공학계열은 참여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취업률도 낮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재학생(2~3학년 중심)들의 산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입직기간 단축 등 지원</li> <li>- 기업에게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리자 지원비</li> <li>- 운영기관에게 운영비 등 운영기관 관리비 지원</li> <li>- 학생에게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연수지원비 지급</li> </ul>
6	해외취업지원 K-Move스쿨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 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li> <li>-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li> </ul>

no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7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센터의 현장 채용행사를 통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li> <li>-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8	일학습 병행제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과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 ~4년 동안 학교 등 교육 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지원</li> <li>-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과 훈련비용 지원</li> <li>-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및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월 40만원 한도) 등 지원</li> <li>- 정부·산업계가 인정하는 도제자격(수료증명)부여</li> <li>※ 대학과 연계된 과정은 해당 대학의 규정(계약 학과) 또는 학점 인정규정(학점은행제)을 따라 학위 취득 가능</li> </ul>
9	대학일자리 센터 운영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 여성커리어센터 등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통합 및 연계하여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li> <li>- 정부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li> </ul>
10	고용복지 센터	복지, 고용서비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li> <li>-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병행</li> <li>-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li> </ul>

(1-2) 교육부

교육부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현장학습, 펀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인격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위한 학비와 기초 생계를 위한 생활지원을 돕고 있다.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 설계를 돕기도 하며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대학생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및 과학기술 사업을 운영하여 체계적 시스템 가운

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을 통해 지덕체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 비진학 청소년이 사업을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표 5>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교육부 사업 개요

no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전문)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li> <li>-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및 파란사다리</li> </ul>
2	대학창업 펀드조성	대학교 및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동문,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이 공동으로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경우, 매칭 출자 형태로 지원</li> </ul>
3	영재교육 지원사업	11세~19세 약4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영재교육 정책 방향 제시 및 영재교육 질 재고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li> <li>- 영재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관계자 네트워크 운영 및 교류 활성화</li> <li>- 영재교육 정책 수립 지원 및 현안 사회적 이슈의 모니터링 대응</li> <li>-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종합현황 정보 제공 및 지원</li> <li>-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 수행</li> </ul>
4	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	8세~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과학·수학교육, 융합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융복합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 육성 기반 조성</li> </ul>
5	인성교육 진흥사업	초·중·고등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진흥법 재정에 따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근거로 인성교육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의무사업 추진</li> </ul>
6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사업	수험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간 자율적 협의·조정예 의한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및 준수를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입제도의 공공성·신뢰성 확보</li> <li>-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수립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준수 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7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고, 대학이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개선 유도 및 역량 강화 지원</li> </ul>

no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8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초·중등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교원양성기관이 다문화·국제화 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li> <li>- 세계적 수준의 외국학교의 국내 분교설립을 심사하고 설립이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운영점검 및 지원 등으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li> </ul>
9	BK21 플러스 사업	대학원생	<p>[BK21 플러스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li> <li>- 석·박사급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지원</li> <li>-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기반 조성</li> </ul> <p>[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업 몰입 도를 제고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 국내박사 양성</li> </ul>
1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장학금 I 유형, II 유형, 다자녀 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li> <li>-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li> <li>-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지원</li> <li>- 중소기업 취업면제(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li> </ul>
11	특수목적 대학 실습 지원	체육특기생, 장애학생, 한국교통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전문인재 양성 및 장애 학생 교육복지 지원 등을 위한 국립 특수목적대학 학생에 대한 실습비 등 지원</li> </ul>
12	교육급여	초·중·고·특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li> </ul>

### (1-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속한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를 중단한 학교밖 청소년, 경제형편, 가정폭력, 비행 등의 이유로 가정을 떠난 가정밖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청소년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이 2018년 기준 전국에 있는 228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화, 사이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거나 상담을 통한 심리지원을 돕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초·중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 또는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 학업 중단 숙려 대상자 포함)을 위한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공간을 마련하여 학업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인격적인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스포츠·문화 예술 활동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가정을 떠나 있는 가정밖 청소년의 생활보장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학업이나 진로, 심리프로그램에 참여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직접 찾아와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기정도가 높은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등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해당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청소년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가정·학교 등의 취약한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표 6>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여성가족부 사업 개요

no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1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9세~24세 청소년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1388청소년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9세~24세 청소년	-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24시간 전화상담 및 문자 상담 운영
3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9세~24세 청소년	- 청소년상담 1388 홈페이지(www.cyber1388.kr)를 통해 사이버채팅 상담, 게시판 상담, 웹 심리검사 등을 지원
4	학교밖 청소년 사업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건강검진, 검정고시 및 취업지원, 학습멘토링, 상담 등 제공
5	청년여성경력 개발지원사업	여대생 및 지역사회 청년여성	- 대학 내 여성커리어센터를 통해 청년여성 지원

no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6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만 9세 ~24세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li> <li>- 청소년동아리활동(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li> <li>- 청소년프로그램 공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li> <li>-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두불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 여성가족부)</li> </ul>
7	청소년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6~24세</li> <li>- 만15~20세</li> <li>- 만16~24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청소년 교류</li> <li>-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li> <li>- 국제회의·행사 참가단</li> </ul>
8	청소년 참여활동	만9세~24세 청소년	-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평가,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캠페인,토론회 등 행사를 직접 기획 및 진행하는 활동
9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가정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비행 및 범죄 유입 예방</li> <li>- 청소년쉼터를 통해 가출 청소년 생활보장,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li> </ul>
10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해당 지역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인프라 구축</li> <li>-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li> </ul>
11	청소년 동반자	9~24세 청소년	-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등 보다 심화된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 (1-4) 기타 정부정책 청년지원 사업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도시의 지자체별 운영내용을 살펴 보면, 개인에게는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수당 및 활동비용 지원,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 장려금, 면접을 위한 정장 무료 제공 또는 대여 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청년지원을 돕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게는 인턴이나 정규직 채용 시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 취업 활동을 돕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후기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기타 정부정책 사업 개요

no	지역	기관/주관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1	서울	서울시	서울시 청년수당	만19세~29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2	서울	서울시청년 활동 지원 센터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만19세~29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기존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진로설계,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간접적인 구직활동 지원과 커뮤니티형성, 지역·현장 연계 등 사회참여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3	서울	서울시복지 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4	부산	부산시	청년 디딤돌 카드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미취업청년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 직접비용 지급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5	부산	파크랜드 (부곡/ 광복점), 리앤테일러 (부전동)	정장대여 서비스 (드림옷장)	부산 거주(거소) 청년구직자 (만18세 ~만34세이하)	-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 서비스를 지원, 취업부담 경감 및 성공취업지원 - 취업준비생 입사면접용 정장 무료대여(자켓, 셔츠, 블리우스, 치마, 바지, 넥타이, 벨트, 구두 등)



no	지역	기관/주관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6	부산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취업준비당	부산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프로그램 앱을 통해 자기주도적 취업역량 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완화</li> <li>- 청년취업역량 향상 모바일구축</li> </ul>
7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청년해외취업지원	부산거주 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 만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면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국내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li> </ul>
8	부산	부산시	창업기업인턴지원	미취업 청년 및 기술직 은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창업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li> <li>- 미취업 청년층 및 기술직 은퇴자들에게 일자리 제공</li> <li>- 16개 기업, 인턴 16명 배치</li> </ul>
9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굿알바	아르바이트종사 청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바이트 종사 청년들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li> <li>- 근로 사각지대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 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인식개선을 통하여 주체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지원</li> </ul>
10	광주	광주시청	청년비상금통장드림	광주에 사는 만19세~39세 근로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채무예방을 목적으로 소액·단기저축을 지원</li> <li>※ 월소득 세전 1,672,105원 이하 청년</li> </ul>
11	광주	광주시청	광주청년드림수당	만19세~34세 광주광역시 거주 미취업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거주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li> <li>※ 중위소득 120%이하</li> </ul>
12	광주	광주시청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만19세~34세 광주광역시 거주 미취업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거주 미취업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하여 진로와 직업 비전을 찾도록 지원</li> </ul>

no	지역	기관/주관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13	광주	광주시청	청년교통수당드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 청년당당 교통카드 - 매월 6만원씩 총 30만원의 교통비 지급 - 취업 및 창업의 경우 자격상실 및 다음날 까지 지급 ※ 대학 졸업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
14	인천	인천시청	인천청년사랑프로젝트	인천광역시 거주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청년구직자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을 통한 구직활동 촉진 및 취업을 증대
15	인천	인천시청	청년면접지원서비스	인천광역시 거주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16	인천	인천시청	청년고용촉진인턴사업	관내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	- 청년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미스매칭 완화로 취업연계 강화 및 취업을 제고
17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2030 U-Dream 사업	20~30세, 울산거주 미취업 청년	- 지역 청년들이 실제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1:1매칭을 통한 일 경험 제공, 이에 따른 급여 및 구직 활동비 지원, 각종 상담과 직무교육 등을 연계하는 지원 사업.
18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18세~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자)	- 열악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및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한 청년지원 사업. ※ 300명 이하의 울산소재 중소기업에 2018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19	울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	2018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no	지역	기관/주관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20	울산	(재)울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울산광역시 일자리 지원사업	울산지역 미취업 청년 200명(1회100 명)	- 취업지원 캠프 운영 - 취업 동기부여, NCS특강, 실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대비 특강 및 모의 시험
21	울산	울산양상 경영자 총협회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지원	울산시 거주 39세 이하 미취업자	- 청년 미취업자 인턴 지원을 통 한 정규직 전환 유도로 청년실 업 해소
22	대전	대전경제 통 상진흥원	청년취업 희망카드	만18세~34세 구직자	-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대전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23	대전	대전시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용자지원 사업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	-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 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 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직, 재 직중인 자
24	대전	대전경제 통상진흥원	청년취업 희망카드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 활동자	- 지역 내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고용여건 개선과 자립을 위한 적금마련 지원 사업 ※ 주소지가 대전으로 6개월 이 상 등록된 청년
25	대전	대전시 청년정책담 당관	2018 대전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청년 기업오래'	만18세~39세 이하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 60여명	- 30여곳의 사업장과 60여명의 청년을 연결하여 청년에게 업 무 경험과 직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면서 청년 기업 또 는 단체에게는 필요인력 지원 으로 기업의 성장과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26	대구	대구상공회 의소	청년 Pre-Job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34세 이하 사람	-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 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 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 활동과 연계하기 위한 지역주 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제외

no	지역	기관/주관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27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18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챌린지	공고일 기준 대구시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또는 청년예비 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시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본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양성</li> <li>※ ICT기술 기반의 사업화 아이템(아이디어)을 보유자</li> </ul>
28	대구	대구달서구 / (사)청소년 교육 문화센터 우리세상	달서구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과 달서의 상상(上上) 프로젝트'	만 18~39세의 청년, 사업기간동안 달서구 주민등록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역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의 지역소속감 향상과 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 경험기회 제공</li> <li>- 청년의 기업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li> </ul>
29	대구	대구시/ 갠컴(주)	청년 내일학교 참여청년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 (만19~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창업(창직)을 계획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창직)선배들의 경험담 공유와 갠이어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조력하기 위함</li> </ul>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취업과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로 이들이 갖는 심리·정서적인 불안정감과 좌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후기청소년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들의 요구(needs)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을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성인기로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원리, 구성 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제시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는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수립하였다. 김창대 외(2011)의 모형은 선행 프로그램 개발 모델들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한 가장 종합적인 모형이다. 김창대 외(2011)의 모형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 목표수립 단계, 2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 3단계 예비연구 단계,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 단계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실정(연구 기간 제한, 단계별 프로그램 적용의 어려움 등)에 맞게 3단계와 4단계를 함께 진행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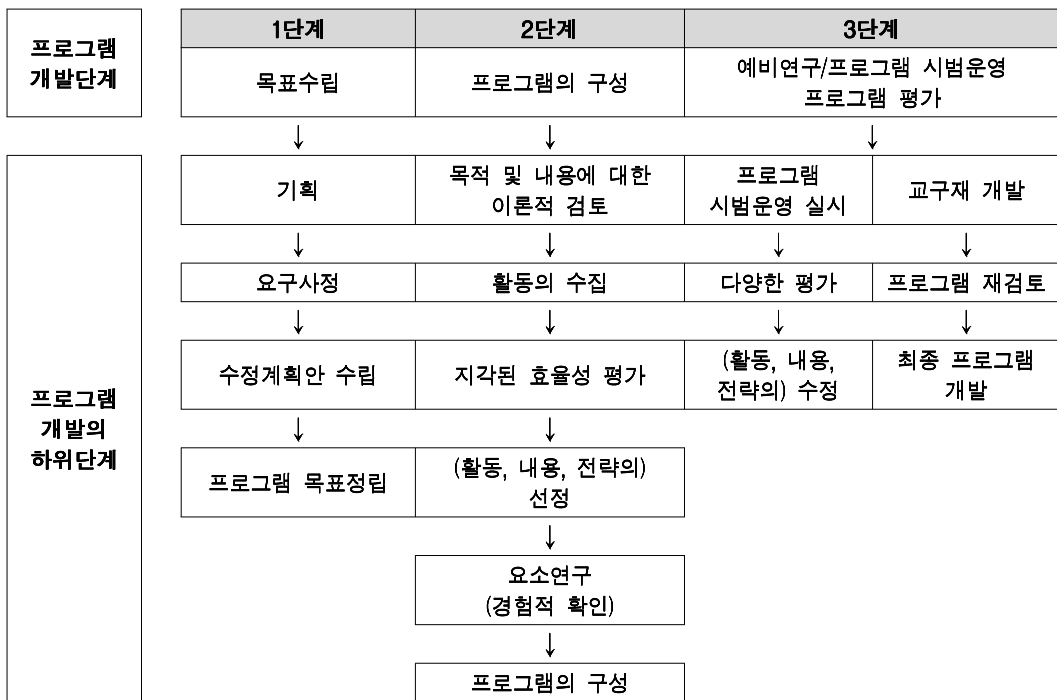


그림 2.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

1단계 목표수립 단계에서는 국내·외 후기청소년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후기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성에 맞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보편적 차원, 그룹 차원, 개별차원의 3차원 단계적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 프로그램 대상자 설문조사 또는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표 8.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조사 방법

방법	세부 내용
문헌 조사 및 국내 현황 검토	- 후기 청소년(비진학 후기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및 자료 검토 - 후기청소년 대상으로 한 국내 프로그램 현황 조사
현장전문가 및 후기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후기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 - 후기 청소년을 통해 경험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통합 모형 개발에 반영
심층 면접	- 후기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통합 모형 개발 시 주요한 구성 요소로 추출
전문가 자문	- 문헌고찰 및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도출된 요인에 대해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2단계에서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실행한 문헌조사, 후기청소년 및 전문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각 차원의 단계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주제 선정을 통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 속에서 후속연구의 필요를 제시한 서미 등(2017)의 선행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이 전문가적 경험 속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연구해 보고 싶은 현장에 들어가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고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구성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통해 모형을 재검토하고 프로그램 활동, 내용, 전략을 수정하였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대상자인 후기청소년과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운영 시는 프로그램 사전, 사후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예비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원별 목표, 프로그램 구성내용 또는 활동 등을 확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과 교구재 등을 함께 확정하여 향후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준비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2. 프로그램 구성 원리

문헌조사, 후기청소년의 사례조사 면접 분석 결과, 다년간 후기청소년을 지도해 온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 구성원리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며, 분석과정과 결과를 통해 도출된 원리 및 구성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후기 청소년은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 세대간, 세대내 불평 등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불확실성 속에서 성인으로서 성장에 유예되며(오찬호, 2010; 이광호, 2003) 청소년과 성인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이 후기청소년 중 비진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로 초점을 맞춰져 있다.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다양하게 개입 방법이 제시되어야 후기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본 연구진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 Mennuti, Freeman와 Christner(2006)가 제시한 개입을 바탕으로 모든 후기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s), 후기청소년이 호소하는 어려움 영역의 요구에 따른 선택적 개입(selected interventions), 자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동 또는 정서에 어려움을 보이는 개인을 위한 표적개입(targeted interventions)을 포함한 다중수준 관점과 각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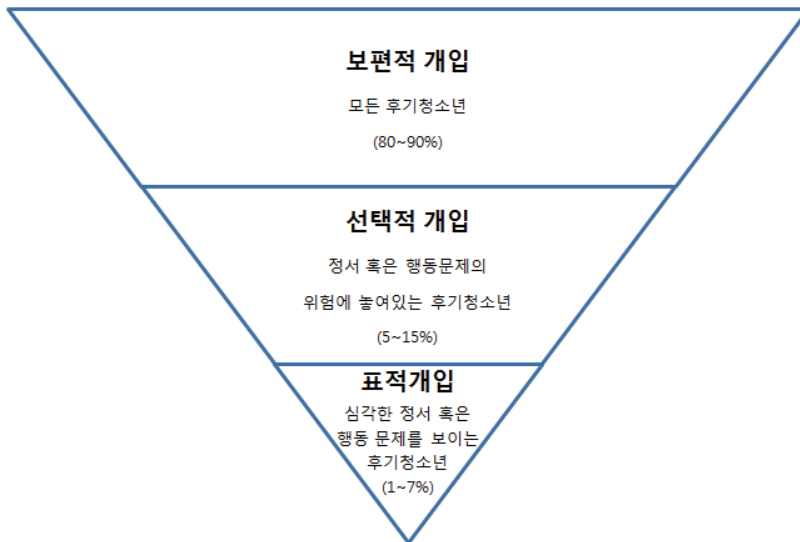


그림 3. 후기청소년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 개입의 다중수준 관점

## 1) 보편적 개입 : 1차 보편 차원

후기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첫 번째 접근은 보편적 차원이며, 사회적·교육과정적·생태학적 환경과 같이 다양한 지원체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본 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사회 동향 및 사회 현상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최신 동향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수혜대상, 혜택 등을 통한 정보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본 단계 프로그램의 목적이 된다. 특별히 전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국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선택적 개입 : 2차 그룹 차원

후기청소년 중 진학취업 등에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룹차원에서의 접근이 구성된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라 구성하여 각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전 연구에서, 이들이 호소하는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은 진로 및 학업으로 나타났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존감, 미래관, 사회적지지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비연구를 통해 나타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뤄져야 하는 영역으로 총 6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이 개발해야 하는 대처기술에 대한 구조화된 매뉴얼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3) 표적 개입 : 3차 개별 차원

보편적 차원과 그룹 차원으로는 불충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도가 높은 개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별히 후기청소년 중 무업청소년(니트)은 진로 목표 또는 계획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직업이 있으나 스펙 등의 문제로 꿈을 포기한 경우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무업청소년으로 이르는 경로가 다르고



이들의 호소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에 기초한 개별화된 행동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기능평가, 다양한 지원 계획 및 배치, 지속적인 관련 자료의 사용과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후기청소년의 호소 문제에 따라 행동활성화, 문제해결기술, 인지재구성 등의 기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차원에서는 후기청소년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인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통해 개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제공되는 워크샵(찾아가는 상담교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이수한 전문 인력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 IV. 프로그램 개발

### 1. 프로그램 목표 수립

목표수립 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 문헌,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본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설정한다. 보편적 차원과 그룹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의 구성은 연구 문헌, 사례 분석,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초안을 구성하였다. 구성원리를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비진학 고졸 청소년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 후기청소년의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후기청소년을 심층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네트워크인 CYS-Net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인터뷰 참여자와 연구진 일정을 조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있어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1) 문헌 검토 및 국내 현황 검토

##### 가)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프로그램은 모든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개입의 프로그램을 1단계로 시작하여 그룹, 개별의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접근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1단계에 해당하는 개입에서는 정보지원체계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탐색을 돕기 위해 사회적·교육과정적·생태학적 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행 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 나) 주요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 정리한 결과 지원분야별, 부처별, 지역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료를 단순히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여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에 제시된 3가지 영역(지원분야, 부처, 지역)에 따른 사례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분야는 대학 진학, 취업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생활 및 경제 지원, 심신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 등으로 접근 가능하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의 사업을 정리하였다. 지역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지원 내용을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주관 기관, 사업명, 대상, 운영내용, 운영방법, 비용 및 기타, 정보 접근을 위한 URL 주소가 정리된 자료가 제공되며, 프로그램 운영자는 매뉴얼에 제시된 사례를 설명하고 대상자들이 사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 가) 조사목적

인터뷰의 목적은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2차 그룹 및 3차 개별)을 개발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문가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보완점과 제안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수집하고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무자들의 후기청소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적용방법에 대하여 비구조화 형태로 의견을 수집하고 탐색하였다.

### 나) 인터뷰 참여자

현장전문가 인터뷰 대상은 후기청소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꿈드림센터,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운영자로 구성되었다. 2018년 6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꿈드림센터 실무자 1그룹,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자활지원센터 담당자, 청년복지사업실무자 1그룹, 총 2그룹을 선정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구분	대상자	소속	성별(연령)	학력	경력
1	전문가 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37)	박사수료	8년
2	전문가 B	특성화고등학교	남(57)	박사재학	32년 4개월
3	전문가 C	아동자립지원시설	남(42)	석사졸업	14년 10개월
4	전문가 D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39)	박사수료	11년 3개월
5	전문가 E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35)	석사졸업	3년 4개월
6	전문가 F	고용노동부	여(45)	대학졸업	18년 11개월

### 다)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는 청소년 상담 및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 박사 1인, 교육학박사 2인, 박사수료 1인, 석사 1인 등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질문지 구성절차(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에 따라 구성되었고, 관련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표 10.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 프로그램과 관련된 참가자의 배경소개
소개질문	• 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좋은 의견
전환질문	•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 • 현장에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토대로 후기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성
주요질문	• 후기청소년의 상담 경험 여부 • 후기청소년의 주요 호소문제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영역 • 후기청소년의 특성 및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개입한 상담내용과 전략 • 후기청소년 유형별 성장을 위한 강점 논의 • 후기청소년 유형별 효과적인 상담적 접근 • 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내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 후기청소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 후기청소년 유형별 프로그램 구성내용의 중요도 • 프로그램의 형식(시간, 방법, 접근, 참여인원 등)의 효과성 부분 • 후기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시간 논의 • 프로그램 형태 및 요소(시청각자료 등)의 효과성 부분
마무리질문	• 후기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시 제안점 •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도움 말씀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후기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 제안사항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형태와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지의 세부 형태는 Krueger와 Casey(2000)의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s)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에 전문은 <부록 1>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 라) 진행절차 및 분석방법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18년 6월에 한 그룹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책임자 1인을 주축으로 공동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가 질문 등을 상황에 맞게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대상 전문가에게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지를 사전에 발송하여 검토하도록 하였고, 인터뷰 당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참여자 동의 후 연구 목적에 따라 녹음하고 인터뷰 종료 후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이어 축코딩을 통해 분류된 개념을 중심으로 대범주와 하위범주를 나누고 이에 따른 의미단위를 분석한 후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 자료들로 범주화하여 내용적 합의를 거친 후 상담 및 질적 분석 전문가 1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 마) 분석결과

개별 인터뷰 결과는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 중점 주제와 개념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별 분석 후 함께 모여 개별 분석한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분석 결과 89개의 하위개념, 16개의 하위범주, 4개의 대범주로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11에서 표 14까지이다.

### (1)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

현장전문가들에게 현장에서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어려움 해결 방법의 세 가지 요소로 추출되었다.

개인적 요인에서의 어려움은 대인관계의 두려움, 무기력한 감정,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자기계발 및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다. 환경적 요인에서의 어려움은 취업을 강요하는 부모님과 마찰, 가정 내 고립되어 있는 은둔형 청소년, 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중단 등의 의견이 있었다.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담자의 지지로 인한 해결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해결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11.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

범주	하위개념
개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의 두려움</li> <li>•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도 싫고 뭘 해야 할지 모름</li> <li>• 열등감, 무기력한 감정을 느낌</li> <li>•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li> <li>• 미래에 대한 막막함</li> <li>• 대학생과의 학력차이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소진</li> <li>• 취업 후 대졸자와의 차별을 느낌</li> <li>• 진로 정보 부족과 정보를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음</li> <li>• 자기계발 및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현재에 안주함</li> <li>•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함</li> <li>• 경제적 어려움</li> </ul>
환경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을 강요하는 부모님과 마찰로 갈등심화</li> <li>• 가정 내 고립되어 은둔형 청소년이 됨</li> <li>• 비진학 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중단</li> <li>• 취업이나 성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많음</li> <li>• 자격증 취득여부에 따른 삶의 차이를 느낌</li> <li>• 주변의 친구가 없음</li> <li>• 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시선</li> <li>• 청년에 대한 연령이 지역마다 다름</li> </ul>
어려움 해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드림 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에서 도움을 받음</li> <li>•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탐색 기회 마련</li> <li>•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취업성공패키지, 복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 커뮤니티 조직 등)</li> <li>•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활비 마련</li> </ul>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하면 정확하신 부분이거든요. 비진학 무직 청소년이 들어오는 방식은 네트워크든 정신과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희 쪽으로 연계되는 사례, 그리고 간헐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나타나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

라는 거죠 이미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거쳐 왔어요 대인관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기력하고,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한다, 불행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어버리니까요, 거기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기계발의 필요성도 안 느끼고 그냥 지금 현재. 사실은 답이 없는 건데 거기서 눈을 감아버리니까 너무 편안한거죠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 월급 타서 자기들끼리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요, 오래 일하면 사장님이 인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사흘 썩 빼고 놀러가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강요하시고, 이제 사회적인 기능을 해라, 알바라도 해라, 취업이라도 해라, 그러니깐 계속해서 이 친구들에게 압박을 하고 이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기보다는 이미 에너지는 다 떨어져 있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깐 계속 피해가는 과정이죠.”

“보통은 악순환에 고리가 되는 것이 진학도 안했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지 않죠. 집에 고립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되기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자면 그 단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은 유입이 안 됩니다 전혀. 유입 자체가 너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정신과에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겨우 들어오고 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을 안 하게 되면.. 대학 진학을 하면 취업 프로그램, 취업 캠프, 대학 상담소에서의 상담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대학 진학을 안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끊겨 버립니다. 완전히 사회에 사라지는, 전락하게 되는..”

“후기청소년을 상담을 해보다보면, 기존에 제가 청소년동반자 활동도 하다보면, 만날 쫓아다니는 거죠 찾아가는 상담이 사실 만날 쫓아가면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니깐 캔슬 잘 나고, 안 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후기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 정말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깐.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찰찰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상담선생님이 마음에 드니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뭐라해요. ‘, ’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아홉 살 졸업한 아이들에게 인식을 심어줬어요. 19세 이전에 검정고시를 취득하고 졸업할 시즌. 즉 19살 10월 달이 되면 아이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를 다 가라고 권유를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커뮤니티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화시키면서 각 분야에 청년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바리스타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바리스타 청년 중 한 사람한테 지원금을 내려서 그 친구들이 모으게끔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농장도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주제로 해서 자기들만의, 자기의 삶을 위한 학교를 만든다는 거죠. 청년학교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말하는 것이 공유스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배우고 싶고 우리끼리 만들자. 그리고 워낙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화시키죠. 모여라. 그래서 대구는 ‘다 모디라’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상도답게 딱 한거죠. 그래서 다 모이게 해서 서로서로 의제도 발굴하고 정책적인 요구도 하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향력 있고 활동 중심의 청년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 (2) 후기청소년의 상담 경험

현장전문가들이 만난 후기청소년의 상담 경험으로는 진학 또는 취업이 안 되는 부적응 고등학생, 친구관계 및 성적관리가 되는 학생, 취업이나 진학이 안 되는 여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경험을 밝혔다. 또한 양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동학대, 방임,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상담을 한 경험이 있었다.

후기청소년의 경우 경제문제, 성격, 무기력, 가족갈등 및 자기탐색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였고, 개별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관련 사업담당자의 추천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와 상담 진행 중 정신과로 연계되어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며, 정



신과 진료경험이 있기도 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후기청소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상담접근 방법으로는 파슨스의 특성요인상담, 홀랜드 직업흥미유형, 인지행동치료(CBT), 가족치료, 해결중심상담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니깐... 애들 중에 진학을 하건 취업을 하건,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고 나가는데, 그러지 않고 이미 결정된 아이들 상당수는 학교 안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위주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 안될 때가 있고, 성적도 안 되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학생인데 취업도 못하고,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진학도 안 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아원,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안하고 양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정말로 안 계셔서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칠팔십 퍼센트가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병 같은 것에 의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지금 와 있는 거죠.”

표 12. 후기청소년 상담 경험

범주	하위개념
후기청소년 상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 또는 취업이 안 되는 부적응 고등학생</li> <li>• 친구관계, 성적관리 등 되지 않는 학생</li> <li>• 취업이나 진학이 안 되는 여학생은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li> <li>•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동학대, 방임,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양육시설에 맡겨진 청소년</li> </ul>
주 호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경제문제</li> <li>• 성격, 무기력,</li> <li>• 가족갈등</li> <li>• 자기탐색</li> </ul>

범주	하위개념
상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신청 또는 관련 사업담당자 추천</li> <li>• 정신과 연계</li> </ul>
후기청소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미결정</li> <li>• 취업 자신감 부족</li> <li>• 자존감 부족</li> <li>• 정신과 진료경험</li> <li>• 무기력</li> </ul>
효과적 상담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슨스의 특성요인상담, 홀랜드의 6가지 직업흥미유형</li> <li>• 인지행동치료(CBT), 가족치료</li> <li>•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하여 해결중심상담법 활용</li> <li>• 해결중심상담접근법</li> </ul>

### (3)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구성 요소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내용은 시간관리방법,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 진로설계 및 동기부여를 위한 진로상담, 대인관계 형성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놀이위주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및 면접스킬, 이직, 사직 등 사회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역할극을 통한 상황 대처 연습 등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최신화된 영상 자료와 시청각 교육의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소 중 연계 지원 시 필요한 사항으로 취업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립기반, 인턴쉽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안하였으며, 후기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경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견학방문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후기청소년의 특성상 단순업무부터 시작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후기청소년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운영 시 상담자의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청소년의 도전에 대한 상담자의 조언과 격려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3.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구성 요소

범주	하위개념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관리방법</li> <li>• 돈, 금리 등에 대한 경제교육</li> <li>• 정서문제, 가족갈등 등 심리상담프로그램</li> <li>• 프로그램 참여 후 지속적인 후속관리가 필요</li> <li>• 구체적인 진로설계 및 동기부여를 위한 진로상담</li> <li>• 대인관계 형성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놀이위주 프로그램</li> <li>•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li> <li>•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li> <li>• 자기이해</li> <li>• 인내심, 자기결정성 기르기</li> <li>• 이력서 작성, 면접스킬, 이직, 사직, 실업수당 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li> <li>•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대처 연습(역할극)</li> <li>• 최신화된 영상 자료 및 시청각 교육</li> <li>•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li> </ul>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프로그램 연계지원</li> <li>•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li> <li>•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li> <li>• 사회적 기업 견학방문</li> <li>• 단기 아르바이트 연계</li> <li>• 단순 업무부터 시작하기</li> </ul>
상담자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도전에 대한 상담자의 조언과 격려</li> <li>• 전문적 상담인력 관리</li> </ul>

“무슨 상담이든 마지막의 단계는 진로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찾아낸다고 하면, 생각보다 안 되는 것이 시간관리, 그리고 경제관념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키워줘야 될 강점이 구체적인 진로 설계와 동기 부여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특성상 워낙 하고 싶은 것이 잘 바뀌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그런데 금방 지루해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한 자기 이해와.. 진로설계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심리 검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등을 습득케 함으로써 취업자신감 향상”

“만약에 교육프로그램을 뭔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 현장이나 일 하러 가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연습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친구가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 학생이 마음에 정말 안들으셨나 봐요. ‘너 아르바이트 이렇게 할 거면 집에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가 ‘열심히 해’ 아니면 ‘좀 더 빨리 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집에 온 거예요. 한 시간도 안 되가지고 그래서 왜 집에 왔냐고 하니깐 ‘사장님이 가라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면 ‘아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텐데, 몇몇 친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걸 좀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드렸던 우리 지금현재의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말, 이런 것들과 지금 휴대폰에 폭 빠져 있는, 부모님에게 사랑 잘 못 받고,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려고 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운전직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고요. 대학 가려는 친구들에게는 최대한 자기 적성대로 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이 미용, 네일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음식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단기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턴십 연령을 내려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주면...(중략)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인턴십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턴십으로 연결될 수 있는.. “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 친구들이 기능을 적절하게 하는 수준은 아르바이트까지 진입을 해야하거든요. 주말에 세 시간, 네 시간이라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효과가 더 증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움직이는 친구들은 조금 조금씩 하려고는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때 그 상황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아이들이 뭘 실수했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 안하게끔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또 하나는 옆에서 자꾸 괜찮다고, 다 과정이라고, 선생님들도 여기가 첫 직장이겠냐고, 작게는 몇 번, 많게는 열 몇 번씩 다 직장을 옮겨서 온 거니까 괜찮다고, 계속 도전하자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 편이죠”

“상담 인력에 대한 훈련도 되게 많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두려움도 있는데 일단 도전을 했으니깐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 도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두는 거죠 자꾸 실패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두려움이 계속 쌓일 텐데. ‘해봤으니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도전을 주는 거죠.”

### (3)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프로그램 형태의 경우 개인상담,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의 병행, 집단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과 캠프 형식, 1박 2일의 마라톤 상담 등으로 혼합형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에 맞는 개인상담 또는 집단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후 모듈식 단계별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도시, 소도시에 따라 후기청소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모듈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후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SNS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며, 또한 후기청소년의 원활한 대상 모집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진로미결정인 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적절한 회기는 최소 4회기~6회기 이상 진행되는 것이 좋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한 모듈 당 7~8명이나 10-15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0명

의 인원이 참여할 경우 보조강사의 운영이 필요하며, 보조강사 1인당 청소년 5-6명이 관리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캠프현장 등 40~50명정도의 대규모인원이 참여할 경우 집단원들간의 역동성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다시 복귀 프로그램 할 때 가장 좋았던 것이 집단을 리더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상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진행하는 사람과 그 아이들을 개인상담할 수 있는 인력까지 같이 들어가서 길게, 청소년동반자처럼 몇 개월 내지는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 까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간접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적으로 오는 활동을 한 다음에. 어쨌든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캠프 형식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 ‘너에게 이게 꼭 필요해’ 하고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상황을 깔아주는 프로그램과, 실제로 1박 2일 같은 캠프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온다는지, 면접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것을 한다는지. 그래서 심리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뭔가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혼합형이 될 것 같아요. 회기형이랑 캠프형이 혼합형으로 가는 것이 줘..”

“개별 상담을 필수적으로 하고 그런 돌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집단을 하면. 그냥 처음 보는 아이들하고 앉아있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 상담 또는 집단상담 선택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의 대도시나 소도시냐에 따라서 특성도 다르고 뭔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도시는 소도시에 맞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대도시도 대도시에 맞는. 그런 게 있어야 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루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SNS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잘 접하는 곳에 안내가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발견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는 고등학교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아니깐.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 번 정도 2월에 하잖아요. 2월 끝나고 하던지. 2월 말에 하든지 아니면 3월 초에 하던지. 교육청과 의 무교육을 체결하든지 해서... 그쪽에다가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미결정자를 받거든요. 받을 때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청소년 지원 센터로 보내야 하잖아요. 보내기 위해서 동의서도 받고, 정보제공동의서도 받고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가 그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해보는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생각보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하고, 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프로그램은 적어도 세 종류로 나눠져야 할 것 같아요. 나눠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조금 나은 아이들은 또 어떻게, 또 조금 도와서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짜져야만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는 찾는 루트가 중요하니까 그런 루트들을 미리 딱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여덟 명에서 열 명씩 7-8명씩 모둠을 났을 때가 아이들이 그 안에서 경쟁도 하고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하게 되면 항상 보면 대인원을 쪼개서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경쟁을 붙이잖아요. 별거 아닌 경쟁심을 통해서 서로 응집력도 생기고 그 안에서 나는 하기 싫은데 옆쪽에는 잘하고 우리도 이기고 싶은데 하기 싫더라도 참여하게 되는..”

“회기형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대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강사만 잘 들어가면 30명도 별 문제없죠. 대신에 일인당 케어하는 건 5명, 6명은 안 넘어야 하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40-50명 정도? 저는 이 곳에 들어오기 전에 제 배경이 청소년 지도사로 오래 일했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소집단보다 어느 정도 중집단 이상으로 갔을 때 캠프 현장에서는 그 역동성이 더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표 14.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범주	하위개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li> <li>• 개인 및 집단 병행</li> <li>• 집단</li> <li>• 집단과 캠프 병행</li> <li>• 집단시 1:1 멘토 운영</li> <li>• 1박 2일(진로캠프, 취업캠프 형식)의 마라톤 상담</li> <li>• 청소년의 어려움에 따라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참여</li> </ul>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식 구성</li> <li>• 대도시 중소도시형 모듈 구성</li> </ul>
홍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를 통한 홍보</li> <li>• 교육청과 연계를 통한 후기청소년 발굴</li> </ul>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회기</li> <li>• 5회기 이상</li> <li>• 6회기 이상</li> </ul>
참여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8명</li> <li>• 10-15명</li> <li>• 30명(소집단 5-6명 구송)</li> <li>• 캠프의 경우 40-50명</li> </ul>

### 3) 후기청소년 심층 인터뷰

#### 가) 조사목적

본 인터뷰의 목적은 후기청소년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프로그램 개발의 수혜자인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성, 보완점과 제안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후기청소년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 내용



과 고등학교 졸업 후 겪는 어려움과 도움받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 비구조화 형태로 의견을 수집하고 탐색하였다.

### 나)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참여 대상은 청소년 프로그램 및 상담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한 자로 후기청소년 연령대인 19 ~ 24살로 한정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경험이 있는 대상 연령 중 진로, 부적응 등의 호소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 모집을 위해 CYS-Net에 5월말에 공고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청소년 대상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구분	대상자	성별	연령	거주지
1	청소년 A	여	23	경기도 용인시
2	청소년 B	남	22	경기도 양평군
3	청소년 C	남	24	경북 경산시
4	청소년 D	여	20	경남 합천군
5	청소년 E	남	20	경기도 의정부
6	청소년 F	여	21	경기도 양평군

### 다)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인터뷰 질문지는 청소년 상담 및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 박사 1인, 교육학박사 2인, 박사수료 1인, 석사 1인 등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질문지 구성절차(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에 따라 구성되었고, 관련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을 경험한 소감이나 주변반응, 도움이 되었던 구성요소 등에 관한 것이며,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후기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점 및 프로그램 형태와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세부 형태는 Krueger와 Casey(2000)의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무리질문(ending questions)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6에 전문은 <부록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6. 후기청소년 개별 심층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 프로그램과 관련된 참가자의 배경소개
소개질문	•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경험
전환질문	•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성
주요질문	•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 • 후기청소년 대상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적절한 형태
마무리질문	•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점 및 현장의 요구

### 라) 진행절차 및 분석방법

후기청소년 개별 인터뷰는 2018년 6월~7월에 각 개인당 30~40분정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진을 주축으로 공동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가 질문 등을 상황에 맞게 추가하여 진행되었다.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대상 전문가에게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지를 사전에 발송하여, 인터뷰 당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참여자 동의 후 연구 목적에 따라 녹음하고 인터뷰 종료 후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을 거쳐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축코딩을 통해 분류된 개념을 중심으로 대범주와 하위범주를 나누고 이에 따른 하위개념을 분석한 후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 자료들로 범주화하여 내용적 합의를 거친 후 상담 및 질적 분석 전문가 1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 마) 분석결과

개별 인터뷰 결과는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 중점 주제와 개념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별 분석 후 함께 모여 개별 분석한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분석 결과 100개의 하위개념과 22개의 범주와 6개의 대범주로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17에서 표 22까지 이다.

#### (1) 연구참여자의 개인 특성

본 인터뷰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의 특성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가족과 동거여부, 두 번째는 학업 경험, 세 번째는 사회경험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혼자 독립하거나 집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기도 하였다. 학업

경험으로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찍이 사회경험을 하기도 하였으나, 건강이나 기타 상황으로 현재 일을 쉬는 경우도 있었다.

표 17. 연구 참여자의 개인 특성

범주	하위개념
가족동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음</li> <li>•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li> </ul>
학업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둠</li> <li>•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음</li> </ul>
사회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일하고 있음(아르바이트, 공공근로, 식당 직원)</li> <li>• 일을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쉬고 있음</li> </ul>

“혼자살고 있거든요. 가족이랑은 떨어져 살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정 폭력이 있고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버지와 분리되게 되었어요. 동생 때문에 집에 있긴 했지만 참기 어려웠고 자퇴를 하고 가출을 하게 되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언니와 오빠가 있고 현재 어머님과 함께 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제, 취업인데 정직원이 아니고 그냥 공공근로 그걸로 제가 직접 별어서.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일주일에 5일이요. 지금 뛰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터넷이나 그런 컴퓨터 같은 것만 접하다가 한 번 그 막노동이라고 하죠? 그런 일터를 한 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아, 공부를 안 하면 이래서 안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가뜰이나 체력이 안 좋은데.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음.. 여러 가지 하기는 했는데. 시멘트를 나르다든지 아니면 이삿짐.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힘을 쓰는 일이죠.. (아르바이트는) 했었다가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복 기간이라 아직은...”

“일단 아르바이트는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따로 없고. 일단 금요일이랑 토요일에는 피씨방에서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빙 앞으로 하게 될 거라.”

“대학을 굳이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취업을 빨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있고, 낮에 일어날 때도 있는데. 기상을 해서, 핸드폰 한 번 더 보고, 햄스터 키운데 잘 잤는지 보고, 밥 없으면 밥 주고 딱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유동적인 것 같은데. 그냥 엄마 가게 부르면 가고 병원 갈 때 가고, 상담 센터 갈 때 나오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계속 쉬고 있어요. 게임을 하긴 하는데, 하는 것 보다 하려고 생각 하는 시간이 많아요.”

## (2) 후기청소년의 과거 프로그램 경험

본 인터뷰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이 과거 경험했던 프로그램으로 상담(개인, 집단), 단체 활동, 바리스타 교육 등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여 자신을 성장토록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으나,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거나 때론 자신과 맞지 않는 집단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였다.

표 18. 후기청소년의 과거 프로그램 경험

범주	하위개념
경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이나 삶에 대한 상담, 단체 활동을 함</li> <li>• 개인상담을 통해 과거 이야기나 미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함</li> <li>• 가족,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눔</li> <li>• 감정 기복, 진로문제, 일과 관련된 상황, 개인 성향 등에 대하여 개인 상담을 받음</li> <li>• 이성문제에 대한 개인상담과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받음</li> </ul>
경험 시 도움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음</li> <li>•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주셔서 좋았음</li> <li>• 이해를 받는 느낌이 도움이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김</li> <li>• 집단 상담 시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접해 볼 수 있어 좋았음</li> <li>• 전문가가 이야기를 들어줘 힘이 많이 됨</li> <li>• 혼자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li> </ul>
경험 시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음</li> <li>• 아쉬운 점은 별로 없으나 이후 스스로 진전되지 못한 점</li> <li>• 집단 상담 시 서로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었음</li> <li>• 할 이야기가 많았으나 시간이 짧았음</li> </ul>

“개인상담 같은 거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좀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 같은 것도 했었고, 중학교 때는 제가 많이 방황을 해서 학교도 안 나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 청소년 센터를. 그런 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랑은 뭐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좀 이해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고. 또 자기보다는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다양한 의견을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좋았던 점이 더 컸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얘기해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별로 없긴 한데. 네. 별로 없긴 한데. 상담이 끝나고 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통 청소년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분들도 조언을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창피함을 가져서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얘기를 하다보면 말하기 쉬웠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하고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어서 혼자서 살기도 하고 그랬었죠. 많이. 일도 없고 외롭기도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감사했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고민을 털어봐도 그냥 간단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대답이나,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힘이 되죠”

표 19.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전반적인 어려움

범주	하위개념
어려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직을 할 때 이력서, 자격증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인이 되니 책임도 늘어나 부담됨</li> <li>• 어머니의 요구로 강제로 외국 유학을 가서 스트레스 받음</li> <li>• 미래에 대한 막막함</li> <li>• 경제적으로 어려웠음</li> <li>• 인터넷 정보의 한계와 정보를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음</li> <li>• 가정폭력, 학교에서 따돌림, 어머니 부재로 성격이 변하고 교우관계 어려움, 대인기피, 우울증을 겪음</li> <li>• 일을 하면 긴장을 하고 속이 아픔</li> <li>• 대인 관계가 어려움</li> </ul>
어려움 해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 삭이며 버텼음</li> <li>• 꿈드림 센터와 상담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음</li> </ul>

(3)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전반적인 어려움

본 인터뷰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은 다양하였다. 취직을 앞두고 준비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 없음과 성인으로써의 이행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미래에 대하여 막막해 하였다. 부모가 선택한 유학을 경험하고 좌절감을 느낀 경우도 있었다. 집안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제한점이 된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모습도 있어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 개인 내적·외적 어려움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교육을 받으며 해결하기도 하였으나 해결방법을 모른 채 혼자 삭이며 버틴 경우도 있었다.

“성인이 되니 책임도 늘어나고 사는 것도 제가 스스로 해야 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2013년 때 학교 선생님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싶은데. 국외에 있었어요 .... 거의 강제죠. 생각도 없었는데. 어렸을 때 언어 교육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원래 1,2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뉴질랜드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엄마랑 언니는 아직 저기에 있어요 언니는 거기서 일을 해요... 극복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마땅히 누군가에게 얘기하기에도 좀 그랬고. 그냥 계속 혼자 삭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전날 학교 갈 때에도 ‘아..’ 하고”

“어려웠던 점. 많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어려웠던 것. 그때그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어렵다고 느끼는. 미래에 어떻게 좀 살면 좋을지 지금 막막해요 되게.”

“사실은 환경은 돈이 제일 컸죠. 지원을 해주셨긴 했는데 사실은 집안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지원이 많이는 힘들더라고요. 뭔가를 또 부탁하기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먼저 어머니의 부재, 심한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따돌림,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제 성격의 변화, 너무 많네요...”

“여기가 대학가라서 그런가.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담센터 가는 게 전부예요. 사실은 다니는 병원에서 팸플릿 같은 거 쫓았는데. 그걸 그냥 한 번 보려고 하다가 찾아보니깐 잃어버렸었어요. 잃어버려서 상담센터 검색해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 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도 많이 한계가 있잖아요. 도움은 많이 되는데 제가 아직 까지도 스스로 뭔가를 찾아본 적은 없었어가지고.”

#### (4) 후기청소년 시기의 경험

본 인터뷰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좌절과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눈치가 없어 사장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나타났다. 도전을 하지 않았거나 개인의 건강이나 성격으로 집에서 쉬고 있게 되기도 하였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성 친구가 없는 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고, 독립으로 인해 월세를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실질적인 고민도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하거나, 성격 등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을 배우며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와 책임감, 주눅, 의욕을 잃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표 20. 후기청소년 시기의 경험

범주	하위개념
후기청소년 시기의 좌절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li> <li>• 알바를 하며 사장님과의 관계가 어려웠음</li> <li>•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참여도 쉽지 않음</li> <li>• 도전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느낌이 없고, 건강 문제로 쉬고 있음</li> <li>• 가정폭력, 우울증 등으로 학교 자퇴를 하고 가출 후 자취를 하고 있음</li> <li>• 일을 하면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어 집에서 하는 것 없이 지냄</li> <li>• 이성 친구가 없음</li> <li>• 월세 등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음</li> </ul>
좌절 경험에 대한 개인 특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으름</li> <li>• 눈치가 없음</li> <li>• 착한아이 콤플렉스가 있음</li> <li>• 무언가를 할 때 걱정 같은 걸 많이하고 성격이 일관되지 않음</li> <li>• 이성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함</li> </ul>
좌절 극복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알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구해 대체함</li> <li>• 상담을 받기 시작함</li> <li>• 극복하려는 힘이 없어 그냥 살아움</li> </ul>
좌절 경험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었음</li> <li>•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짐</li> <li>• 영향을 안 받은 것처럼 지냄</li> <li>• 동생을 돌보지 못한 후회와 책임감이 있음</li> <li>•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점점 잊음</li> <li>• 일상생활에서 의욕이 없고 일도 미루게 됨</li> </ul>

“눈치가 없는 것?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싶고 뭔가 내가 눈치 챘을 때는 늦어버렸고”

“ ‘착한아이 콤플렉스’ 진단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집과 분리시켜주는 시스템을 이용을 권유하셨는데 ‘동생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행동에 대해 가만히 있는데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러서 경우와 같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피씨방이나 서빙 말고 카페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덜렁된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사실 뭔가를 배우는 것이 느리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민폐를 많이 끼쳤



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곳의 사장님께서 ‘너는 너무 삶의 의욕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든가. 그런데 그게 일할 때마다 계속 그랬었고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이 들렸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주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갔다 오는 사실 경비도 없을 때가 간혹 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럴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용돈을 받아본 게 거의 없어서. 가끔 엄마가 만 원씩 주시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시는 용돈 같은 건 없어서... 금전 적인 문제가 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 긴장을 하고 속이 너무 아파요. 일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면 속이 아파요. 일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실수 같은 걸 하고 그 뒤에 속이 뭐 찌르듯이 아파가지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 계기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어떤 SNS에서 심리상담에 대해서 짧은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 블로그 통해서 어디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꾸중을 받을 때는 기분 안 좋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넘기는 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고 무기력하다고 해야 하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깐 말은 듣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싶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점점 잊는 것 같아요. 친해지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안 만나니깐 그런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 (5) 전문가에게 받기를 원하는 도움

본 인터뷰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이 전문가에게 받기를 원하는 도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적 지원, 진로, 시간, 건강, 경제관리, 군대 등의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깊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신의 성격이 바뀌거나 미래 계획과 이

에 대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을 나누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하거나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하는 등 다양한 영역과 내용이 나타났다.

표 21. 전문가에게 받기를 원하는 도움

범주	하위개념
도움 희망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도움 - 식재료 등 물적 지원</li> <li>• 진로(진학)에 대한 도움 및 정보(이력서 쓰기 포함)</li> <li>• 시간관리</li> <li>•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li> <li>• 경제관리(돈을 잘쓰는 방법, 생활 전반)</li> <li>• 군대 문제</li> <li>• 식사예절 이나 가정교육 등</li> </ul>
도움 희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활발해 지도록</li> <li>• 미래(수능, 대학 등)의 실질적인 지원 연계나,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돕는 교육</li> <li>•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같이 찾아주면 좋겠음</li> <li>• 동아리를 통해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음. 지도자가 한분이 있으면 좋겠음</li> <li>•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음</li> <li>• 쓸데없는 걱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음</li> <li>• 외모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이어트 하는 것을 도움받고 싶고,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싶음</li> </ul>

“저는 혼자 생활한지 오래되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도 좋다고 생각해서... 혼자 생활하다보니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게 되어서 음식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리방법도 좋겠지만 식재료에 대한 물적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써본 경험이 적다보니 그런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원비 같은 금전적인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개념을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가.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요 이제 아침에 만날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제 8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다 시 9시에 자버리고, 다시 깨면 10시까지 자고 깨면 보통 거기서 일어나기 하는데. 가끔 너무 피질 때는 3시까지 누워버리니까.”

“돈을 잘 쓰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 쓰는 것을 좋아해서 되게 많이 쓰는데,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하게 돼서. 방법을 찾고 싶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체감돼서 건강검진을 받아야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들었어요.”

“군대도 가진 가야하는데. 제가 공익이긴 한데 현역을 갈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남자한테 물어봐야할 것 같아서. 군대를 갔다오신 분들.”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만 봤거든요. 그 검정고시를 보고 났는데도 지금 사실 막막해요. 대학을 가진 가야하는데 어떻게, 어디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막막하고 공부. 사실은 수능을 봐야하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그 수능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니깐 그런 것도 너무 막막해서...”

“식사에절이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많이 안좋았나봐요.”

“하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예술 전반에 대해 흥미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아서 지도자 한 분이 계시고,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모여 자유로이 의견을 내는 프로젝트팀이 있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원했던 것인데 잘 없더라고요.”

#### (6)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본 인터뷰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선호하는 요일로 주말, 평일, 상관 없음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답변이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요소로는 전문가 도움 희망영역과 유사하게 진로나 현실적 지원, 자기이해, 자격증 등에 대한 자신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 따라 개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고, 집단을 선호기도 하였고, 개인과 집단을 함께 병행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프로그램 회기도 10회를 기준으로 좀더 길거나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진행시 시간은 3시간 이

내로 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범주	하위개념
선호 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li> <li>• 평일</li> <li>• 상관없음</li> <li>• 월요일</li> <li>• 일요일</li> </ul>
프로그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결정, 진로 준비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li> <li>• 현실적,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되면 좋겠음</li> <li>• 자기이해(심리검사 포함)</li> <li>• 개인이 원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원하는 부분을 잘 챙겨주면 좋겠음</li> <li>•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동일하게 챙겨주면 좋겠음</li> <li>•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알려주면 좋겠음</li> <li>•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줌</li> </ul>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리, 가까운 곳</li> <li>• 찾아갈 수 있는 장소면 괜찮음</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상담</li> <li>• 개인 및 집단 병행</li> <li>• 집단</li> </ul>
홍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를 통한 홍보</li> <li>• 상담센터를 통한 홍보</li> <li>• 인터넷, 라디오, 지역신문, 동영상 등으로 하면 좋겠음</li> </ul>
회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회 이하가 적당</li> <li>• 정하기 어려움</li> <li>• 10회 이상</li> <li>• 많이 만나면 좋겠음</li> <li>•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심리상담 주 2회, 성과지향 주 6일</li> <li>• 6회 또는 한달 정도</li> </ul>
회기당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시간 이하</li> <li>• 1~2시간</li> <li>• 2~3시간</li> <li>• 1시간 30분 정도</li> </ul>
회기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주일에 1회</li> <li>• 일주일에 2~3번</li> <li>• 일주일에 1~2번</li> </ul>

## 2. 프로그램 구성 원리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운영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구성하였다.

### 1) 1차 보편 차원 프로그램

#### 가) 1차 보편 차원 프로그램 목표

후기청소년에 대한 1차 보편 차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청소년의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등 전반적인 영역의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영역의 지원 사업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지원을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후기청소년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나) 1차 보편 차원 프로그램 구성원리

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경제적 측면 및 심리·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1차 보편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최신 동향의 정보를 프로그램의 특성과 수혜대상, 혜택 등을 통한 정보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본 단계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후기청소년 부처별 지원 정책으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정부정책별 청년지원 사업의 위주로 후기청소년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하고 조사하였다. 사업명과 참여가능한 대상, 운영내용 및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청소년이 직접 정보탐색 할 수 있도록 URL을 제시하여 두었다(매뉴얼 참조).

### 2)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 가)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목표

후기청소년에 대한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자립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삶의 기술(예, 시간관리, 경제활동 등)을 배우고 신장한다. 셋째, 후기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나)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구성원리

첫째,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자립 향상에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과 보호시설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2016년 두드림 기본 프로그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2016년 두드림 특성화 프로그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상담 매뉴얼-이루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을 개발·활용하였고, 현장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두드림 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 9개 영역, 38개 섹터, 60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별 운영시간도 30~140분 사이로 유연하게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청소년의 시간관리 방법,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 진로설계 및 동기부여를 위한 진로상담, 대인관계 형성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놀이위주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및 면접스킬, 이직 및 퇴직에 관한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상황대처 연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진로, 시간관리, 경제(돈), 대인관계, 직업, 여가인 6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운영시간은 60분으로 구성하였다.

### 3)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

#### 가)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목표

후기 청소년에 대한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후기청소년이 더 활동적, 적극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삶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술을 신장한다. 셋째, 후기청소년의 변화 행동 실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보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 나)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첫째, 후기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많이 호소하며 스스로 칩거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들이 자신의 발달연령에 맞는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활성화 훈련을 접목하였다. 행동활성화 훈련은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 노인과 같이 우울, 무력감, 위축을 주요 문제로 하는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그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보편적 차원과 그룹 차원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후기 청소년의 경우 목표지향적으로 에너지를 동원하는데 현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삶의 에너지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그 효과가 입증된 행동활성화 훈련은 만성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에게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후기청소년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미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같이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반복하였다.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후기청소년에게 구체적인 문제상황별로 문제해결기술훈련을 실시한다면 단기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습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셋째, 후기청소년들의 대처능력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계속되는 걱정, 즉 부정적 사고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탄력성이다. 이에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세 번째로 변화 행동 실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행동 실행 동기를 높이는 인지재구성훈련을 포함하였다.

## 3. 예비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 1) 예비연구 :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 가)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한 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에 대비한 사후검사의 변화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참여 청소년의 참여자 관점 평가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시에 소재한 특성화고 1개 집단(8명)과 자립지원시설 1개 집단(4명)으로 총 1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기본 심리 욕구, 우울, 스트레스이다. 또한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한 참여자의 참여자 관점 평가 및 만족도를 보완적인 질적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시범운영 평가 개요는 및 연구설계는 표 23와 같다.

표 23.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집단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O1 : 사전검사 / 기본심리욕구, 우울, 스트레스

O2 : 사후검사(실험집단) / 기본심리욕구, 우울, 스트레스,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의견

X1 : 실험처치 /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6회기×60분)

## 나)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연구 개발진으로 함께 참여한 상담경력 5년 이상의 상담심리전공 석사 1인, 상담경력 5년 이상의 상담전공 박사과정 겸 청소년상담사 1인, 상담경력 3년 이상의 상담전공 석사 겸 청소년상담사 1인, 상담경력 3년의 사회복지전공 1인으로, 시범운영에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익힌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부산시에 소재한 특성화고 1개 집단(8명)과 자립지원시설 1개 집단(4명)으로 총 1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특성화고 집단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 중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진로미결정자로 구성되었다. 해당 학교 전문상담교사에 따르면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고, 더불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립지원시설 집단 참여자들은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시



설을 퇴소할 때 타인이나 다른 도움과 별개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해당 시설 상담원은 환경 또는 자의에 의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립과 더불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N (%)
성별	남	9명(75.0%)
	여	3명(25.0%)
합계		12명(100%)
연령대	19세	8명(66.67%)
	20-22세	3명(25.0%)
	23-24세	1명(8.33%)
합계		12명(100%)

## (2) 측정도구

### (가) 기본 심리 욕구

기본 심리 욕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개념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결정성을 얻게 된다(윤인호, 2011).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yan과 Deci의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번역과 역번역을 거쳐 사용하였다. 김아영, 이명희(2008)가 번역과 역번역, 그리고 타당화를 포함한 번안과정과 설문 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다. 자율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의 힘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유능감은 개인의 능력을 자신의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권순홍, 2013). 관계성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과 타인이 사회 속에 함께 속해 있음을 느끼는 욕구이다. 자율성(6문항), 유능감(6문항), 관계성(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그렇지 않다’

~ ‘매우그렇다’ 의 6점 Likert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욕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  가 전체 기본 심리 욕구는 .87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성 .770, 유능감 .765, 관계성 .839로 나타났다.

#### (나) 우울

본 연구에서는 박현정, 김형남, 김인복, 전승아(2000)가 청소년의 우울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로 검증한 BDI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Beck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본래 성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청소년까지 확대되어 사용 되고 있는 우울척도이다. BDI는 우울의 인지, 정동 증상 14개 문항, 신체적 증상 7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3점까지 평가하는 4점 Likert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  가 .883로 나타났다.

#### (다)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Yim, Choi, Kim, Hwang와 Hur(1996)에 의해서 개발된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의 한국어판으로 외래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스트레스 평가척도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4점까지 평가하는 5점 Likert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  가 .873로 나타났다.

## 2)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범운영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범운영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청소년(1집단, 8명)과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한 자립지원시설 청소년(1집단, 4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며,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함을 설명했다. 또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실시 전 해당 설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후검사를, 그리고 만족도 조사 및 평가의견도 함께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 우울, 스트레스의 사전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참가자의 전반적 만족도 및 소감문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 다) 연구결과

### (1)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값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5. 기본심리욕구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N	평균	표준편차	Z	p
기본심리욕구	사전	12	84.42	10.81	-1.533b	.125
	사후	12	88.00	12.62		

b.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심리욕구 총점에서 사후검사 점수(M=88.00)가 사전검사 점수(M=84.4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3.5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이후 기본심리욕구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세부적인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에 대한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26.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N	평균	표준편차	Z	p
자율성	사전	12	29.33	4.16	-.045a	.964
	사후	12	28.83	5.06		
유능감	사전	12	25.17	4.89	-2.632b	.008**
	사후	12	29.75	4.49		
관계성	사전	12	29.92	4.16	-.402b	.688
	사후	12	29.42	5.66		

\*\*p<.01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b.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에 사전값에 비해 자율성( $Z=-.045a$ ,  $p>.05$ ), 관계성( $Z=-2.632b$ ,  $p>.05$ )에서는 사후값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능성( $Z=-.402b$ ,  $p<.01$ )에서는 유의한 통계적 변화를 보였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구성원들은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는 유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가운데 유능감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2)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값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7. 우울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N	평균	표준편차	Z	p
우울	사전	12	8.75	8.06	-1.990a	.047*
	사후	12	5.50	7.31		

\* $p<.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 총점에서 프로그램 사전( $M=8.75$ )에 비해 사후( $M=5.50$ )에 평균의 감소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1.990a$ ,  $p>.05$ ). 즉, 본 프로그램은 우울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3)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값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8. 스트레스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N	평균	표준편차	Z	p
스트레스	사전	12	22.58	4.14	-.000c	1.000
	사후	12	22.58	4.23		

c. 음위 순위의 합계는 양의 순위의 합계와 같습니다.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총점에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사전(M=22.58)과 사후(M=22.58)의 평균값이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000c, p>.05). 즉, 본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통계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3)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및 평가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회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 회기평가는 주관식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표 29와 같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4.8점), 유의한 시간이었다(4.8점)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진행순서 및 방법, 진행 시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29.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연번	질 문	평균점수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4.8
2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것은 나에게 유익하였다.	4.8
3	나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친구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한다.	4.8
4	프로그램의 내용은 만족스럽다.	4.8
5	프로그램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흥미로웠다.	4.7
6	프로그램의 진행순서나 방법은 만족스럽다.	4.8
7	프로그램의 진행시간은 만족스럽다.	4.8
8	프로그램 진행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4.7
9	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4.5
10	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4.5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면 표 30과 같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회기는 4.7로 응답하였고 그 외 전반적인 회기는 4.8점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표 30.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

	질 문	평균점수
1회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4.8
	황금 밥그릇 법칙 / 나의 목표 설정 및 계획 세우기	
2회기	생활관리 체크리스트	4.8
	나의 하루일과 및 시간 활용 점검	
3회기	농부의 선택	4.7
	생활 속 경제 정보	
	저축의 중요성	
	합리적인 카드사용 방법	
	나의 소비생활 패턴 파악하기	
4회기	처음 보는 친구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	4.8
	누구나 원하는 친구가 되기 위한 지침 소개하기	
	대인관계 체크리스트	
	사회적 상황 연습하기	
5회기	이력서 작성하기	4.8
	면접 기술 익히기	
	직장 생활 예절 배우기	
	이직 및 퇴직	
6회기	나의 여행계획 세우기	4.8
	소감문 쓰기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회기별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들에 대한 평가의견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받아 표 3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기에서 별칭을 짓고 서로 소개하는 등의 활동에 학생들이 신선한 작업으로 응답하였다.

2회기에서는 학생들의 생활과 일정을 체크하면서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다. 3회기의 경우 경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프로그램 활동 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손꼽기도 하였다. 4회기의 경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5회기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하기, 면접 시 복장에 대한 부분, 회사 면접에 관한 이야기 등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였다. 6회기에서 여행계획을 세우고 고민하였던 작업들이 기분 좋은 활동이었고 계획 세운 것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표 31. 프로그램 진행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

회기	주요내용	평가의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에 대한 설명)</li> <li>○ 황금 밥그릇 법칙</li> <li>○ 나의 목표 설정 및 계획 세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을 짓고 부르는 방식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다.</li> <li>○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관리 체크리스트</li> <li>○ 나의 하루일과 및 시간 활용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li> <li>○ 일정을 체크해 보면서 나의 생활 패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부의 선택</li> <li>○ 생활 속 경제 정보</li> <li>○ 저축의 중요성</li> <li>○ 합리적인 카드사용 방법</li> <li>○ 나의 소비생활 패턴 파악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 더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li> <li>○ 경제에 대해 쉽게 알수 있어서 좋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인상적이였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보는 친구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li> <li>○ 누구나 원하는 친구가 되기 위한 지침 소개하기</li> <li>○ 대인관계 체크리스트</li> <li>○ 사회적 상황 연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그 사람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만 판단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분위기가 아니라 그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 작성하기</li> <li>○ 면접 기술 익히기</li> <li>○ 직장 생활 예절 배우기</li> <li>○ 이직 및 퇴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복장에 대해 배우는 부분에서 양복에 흰양말을 신는게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li> <li>○ 취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좋았다.</li> <li>○ 회사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 뜻 깊은 것 같다.</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여행계획 세우기</li> <li>○ 소감문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이라는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억지로라도 여행계획을 세워보니 진짜 실행에 옮겨야만 할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었다.</li> <li>○ 막연하게 생각만 해본 여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시간이어서 좋았다.</li> <li>○ 덕분에 여행 계획도 세우고 유익했다.</li> <li>○ 자신의 소망을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li> </ul>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일에 걸쳐 활동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li> <li>○ 전반적으로 주제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고 좀더 다양한 주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예: 보험, 지역자원, 자격증 등)</li> <li>○ 활동이 즐거웠고 알차고 뜻깊었다.</li> <li>○ 매우 유익한 시간이였고 프로그램 자체도 재미있었습니다.</li> <li>○ 수업이 유익했으며 알찬시간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li> </ul>

#### 4)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전문가 평가

##### 가) 연구방법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평가는 전문가 평가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평가 시 프로그램 평가는 총 6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안내되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이 각 회기의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용 적합도, 두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이 이해하기가 수월했는지에 대한 내용 이해도,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후기청소년의 변화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유익성, 네 번째는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흥미도로 본 4가지의 기준은 Likert 척도 6점 척도(0~5)으로 점수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는 각 차시의 총평으로 내용이 적합한지에 따라 적합, 수정, 삭제의 택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차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5인으로 후기청소년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연구를 수행중인 교수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2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1명이었다.

##### 나) 평가결과

본 프로그램의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간 신뢰도(Intra-class coefficient)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토 의견을 분석한 결과 .974로 나타났으며, 본 결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결과로 살펴볼 수 있다. 평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합도에서는 차시에 따라 4.40에서 4.60의 점수를 얻었으며, 이해도는 4.20에서 4.80, 유익성은 4.20에서 4.80, 흥미도는 3.60에서 4.20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이해도, 유익성이 4점대의 점수를 획득한 것에 비해 흥미도는 3.60이 최소로 점수가 가장 낮아 본 프로그램이 대상자를 위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보다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이 적합, 수정, 삭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고, 전문가 검토와 수정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32.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 결과

		내용 평가								총평	
		적합도		이해도		유익성		흥미도		적합	수정
		M	SD	M	SD	M	SD	M	SD	빈도	빈도
행 동 활 성 화	아웃사이드 인	4.40	.55	4.20	.84	4.40	.55	3.80	.84	4	1
	피로워? 즐거워!	4.40	.55	4.80	.45	4.60	.55	3.80	.84	4	1
	더 높은 곳을 향해	4.60	.55	4.20	.45	4.60	.55	4.20	.84	4	1
	인생 퍼즐 디자인	4.60	.55	4.40	.55	4.20	.84	3.60	.55	5	-
	소확행	4.40	.55	4.60	.55	4.40	.55	4.20	.45	5	-
	또 다른 시작	4.60	.55	4.40	.55	4.40	.55	4.00	.71	5	-
문제해결	해우소	4.40	.55	4.40	.55	4.80	.45	4.20	.84	5	-
인공지능	나를 어렵게 하는 t	4.60	.55	4.40	.55	4.80	.45	4.00	.71	5	-

수정 또는 보완 의견에는 개별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상자가 무기력한 청소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과 초반부터 과제가 나갈 경우 참여한 청소년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담겨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전문적인 상담기법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각 회기별 세부적인 후기청소년의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상담자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본 프로그램의 대상과 프로그램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활용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듈과 회기에 대한 실제 적용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듈이나 회기는 적합하나,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과 후기청소년의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전문가를 위한 지침 안내가 보다 보완될 필요성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 4. 최종 프로그램

예비연구(프로그램 시범운영)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의 운영원리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재 및 매뉴얼은 별도 제작하여 향후 프로그램 적용과 활용을 높이도록 하였다.

## 1) 1차 보편 차원 프로그램

### 가) 1차 보편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원리

첫째, 프로그램 주요대상은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지원 사업위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둘째, 프로그램은 총 1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한회기는 20 ~ 30분 정도의 강의와 정보전달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도자는 교육용 PPT로 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강의에 볼 수 있는 보조자료를 출력하여 참고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부처별 지원정책인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정책별 청년지원 사업의 위주(대상, 운영내용, 운영방법, 비용 및 기타 등)에 대해 지도자가 설명 및 강의하여 주고 특히,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나) 1차 보편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주요내용

#### (1)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진학 일반고 최종학년 대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육성,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한다. 비진학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 (2) 교육부 청년지원사업

교육부의 경우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창업 희망 사다리 장학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대학창업펀드 조성, 영재교육지원사업,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3) 여성가족부 청년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경우 후기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

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에 있어서 자립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CYS-Net)운영, 1388 청소년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4) 정부정책 청년지원사업

정부정책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대구 지역에서 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별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운영하였고, 부산지역의 경우 청년 디딤돌카드, 정장대여서비스, 취업준비땅, 청년해외취업지원, 창업기업인턴지원이 있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청년 비상금 통장드림, 광주청년드림수당,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청년교통 수당드림을 운영하였고,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청년고용촉진인턴사업이 있었다. 울산의 경우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2030 U-Dream 사업, 2018년 울산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주택임차보증금융자지원,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 Pre-Job이, 대구에서는 청년 내일학교 참여청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 2)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 가)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운영원리

첫째, 프로그램 주요대상은 후기청소년(19세 ~ 24세 미만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는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구성한다. 현장전문가 사전 요구조사에서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한 회기는 60분으로 한다. 1회에 2회기씩 총 3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은 각 회기 별로 “도입 - 전개 -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한다. 도입부분에는 참여자들이 라포를 형성하고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에 초대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도자용 매뉴얼 지침대로 하고, 참가자는 워크북을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진행은 주진행자가 진행하며, 보조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진행자를 조력하고 참여자들을 지지, 독려한다.

## 나)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후기 청소년의 자립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회기별 영역, 주제 및 주요활동을 요약하면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주요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회기>의 영역은 진로로 황금 밥 그릇의 법칙을 설명하며 꿈을 위한 목표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목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의 영역은 시간관리로서 주변인사의 사례를 통해 하루일과와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탐색 한 후 후기청소년의 하루일과를 파악하여 나의 삶의 패턴 가운데 변화하고 싶은 부분을 파악하고,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3회기>의 영역은 경제로서 경제가 무엇인지, 왜 배워야 하는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카드사용방법과 저축을 통한 돈 관리를 통해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4회기>의 영역은 대인관계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관계를 연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황 연습하기(예: 기본적 대인관계, 직장, 가족 등)를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5회기>의 영역은 취업으로 구직의 과정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하기, 면접 기술 익히기, 직장 생활 예절 배우기, 이직 및 퇴직의 방법 등에 대해 익힐 수 있도록 한다.

<6회기>의 영역은 여가로 여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3.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주요내용

회기	회기명	영역	주제	주요활동
	오프닝		상담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소개</li> <li>• 우리들의 약속정하기</li> <li>• 서약서 작성하기</li> <li>• 사전검사</li> </ul>
			나로 말할 것 같으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칭 짓기</li> <li>• 자기소개서 작성하기</li> </ul>
			Ice-bre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t 1~5 게임 진행</li> </ul>

회기	회기명	영역	주제	주요활동
1	황금 밥 그릇을 찾아라 !	진로	꿈을 위한 목표에 우선순위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금 밥 그릇 소개</li> <li>• 황금 밥 그릇의 법칙[설명 및 시연]</li> <li>• 황금 밥 그릇 법칙 적용</li> <li>• 나의 목표 설정 및 계획 세우기</li> </ul>
2	Time Check & Check	시간 관리	실천가능한 시간관리 목표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관리 체크리스트</li> <li>• 주변인사의 사례를 통한 하루일과 및 시간활용 점검</li> <li>• 나의 하루일과 점검</li> <li>• 실천 가능한 시간관리 목표 세우기</li> </ul>
3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돈)	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경제를 배워야 하나</li> <li>• 농부의 선택</li> <li>• 찾아라 따끈따끈 정보</li> <li>• 빠른 저축, 늦은 저축 (저축의 중요성)</li> <li>• 합리적인 카드사용방법/ 돈관리법</li> <li>• 나의 소비생활 패턴 파악하기</li> </ul>
4	너와 나의 연결고리	대인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관계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보는 친구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li> <li>• 누구나 원하는 친구가 되기 위한 지침 소개하기</li> <li>• 대인관계 체크리스트</li> <li>• 사회적 상황 연습하기</li> </ul>
5	성공 취업 백서	취업	구직의 과정을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 작성하기</li> <li>• 면접 기술 익히기</li> <li>• 직장 생활 예절 배우기</li> <li>• 이직 및 퇴직</li> </ul>
6	꿈을 찾아가는 여행	여가	여행을 위한 세부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여행 소개</li> <li>• 나의 여행계획 세우기</li> </ul>
	마무리		긍정적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릴레이 칭찬하기</li> <li>• 소감문 쓰기</li> <li>• 미래 나의 명함 만들기</li> </ul>
			마침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약서 작성하기</li> <li>• 소감문 쓰기</li> <li>• 15초 소감 나누기</li> </ul>

### 3)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

#### 가)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운영원리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차원 프로그램은 개인 상담의 형식을 취한다. 개인 상담은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과 달리 그 진행양식이 유동적이며 나선형이다. 즉, 본 매뉴얼이 회기별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괄적 틀에 불과할 뿐, 내담자의 사정과 이해 속도에 따라 상담자가 이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기술훈련 회기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할 때 다양한 발달 영역별로 문제해결기술 훈련을 반복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둘째, 집단 차원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다양한 삶의 기술(예, 시간관리, 경제활동 등)을 개별 차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내담자의 요구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동 활성화 훈련에서 내담자가 저축통장 개설을 활동계획으로 설정했다면 이를 세부 단계로 나눌 때 경제관리의 저축과 관련된 부분을 참조하도록 한다.

셋째,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세 가지 훈련 모두 그 원리를 내담자에게 교육하는 것보다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의 과제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삶의 과제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 수집하여 이를 기록해 두고 각각의 기술과 어떻게 연결 지을지 미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율성을 중시하는 후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다. 매뉴얼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칫 상담자가 내담자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여 놓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자율성이 존중될 때 더 동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후기 청소년은 발달적으로 이미 상당한 독립성을 성취해야 할 연령이다. 부적응적 후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존중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기억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격려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요망된다.

#### 나)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보편 차원 및 그룹 차원으로 불충분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3모듈 8회기로 구성하였다.

제 1 모듈인 행동활성화 훈련의 목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동활성화 훈련의 주요 목표는 후기 청소년의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고 활력과 적극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1회기에는 행동활성화치료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훈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협력의 바탕을 다진다. 아울러 내담자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활동기록지의 사용을 안내한다. 2회기에는 내담자의 일주일간 활동을 점검함으로써 무력감과 위축을 야기하는 활동과 긍정적인 기분과 동기를 동반하는 활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한다. 3회기에는 다양한 삶의 영역별로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와 활동을 찾음으로써 변화의 동기를 강화시킨다. 4회기에는 3회기에서 찾은 활동을 더욱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활동계획으로 전환한다. 5회기에는 4회기의 계획을 실행한 것을 같이 검토하고 내담자의 실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4회기와 5회기는 필요에 따라서 반복할 수 있다. 6회기는 행동활성화 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회기로 구성되었다.

표 34.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요구내용

모듈	회기명	상세 내용	
1	아웃사이드 인(Outside-In)	행동활성화치료 개념 이해	
	피로워? 즐거워!	활동기록지 검토에 따른 감정변화 나누기	
	더 높은 곳을 향해	다양한 삶의 영역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기	
	인생 퍼즐(Jigsaw) 디자인	구체화된 꿈과 희망의 세부활동 계획하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실행 가능한 활동을 선택하고 목표 달성하기	
2	또 다른 시작	변화의 힘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행동 유지를 위한 다짐하기	
	문제해결기술훈련	해우소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소리 외침	자신의 삶의 문제해결 영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마련하기
3	인지재구성	나를 어렵게 하는 It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고 인지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제 2 모듈인 문제해결기술훈련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영역별로 문제해결기술단계 7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단계는 문제기술훈련의 필요 영역 파악, 2단계는 문제해결기술훈련 제안, 3단계는 문제에 대한 세부적 파악과 문제 정의, 4단계는 문제 상황에 대한 목표 설정, 5단계는 해결 방안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6단계는 해결방안 평가, 7단계는 최종 방안 선택 및 연습이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매뉴얼에 제시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내담자의 예시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문제해결기술훈련은 상담회기 내 단회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 내담자와 함께 파악되었다면 여러 회기에 걸쳐 반복할 수 있다.

제 3 모듈인 인지재구성 훈련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적 기술을 다루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학습시킨 후, 자신이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지 인지하도록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긍정적인 대안적 생각을 찾고, 그 생각 속에 내담자에게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재구성 훈련 역시 상담 회기 내 단회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 내담자와 함께 파악되었다면 여러 회기에 걸쳐 반복할 수 있다.

#### 4) 프로그램 최종 개요 및 활용 방안

본 프로그램은 고용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불안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돕고자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시, 후기 청소년의 대상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3단계의 다중수준 관점에 따라 수준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단계는 보편 차원에서 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개발되었다. 2단계는 그룹 차원으로 진로, 학업, 미래 계획에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가지 영역을 주제로 그룹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2단계 프로그램 참여 시 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성이 높아지고 후기 청소년이 개발해야 하는 대처기술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본 연구의 타겟 대상인 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삶의 동기가 없고 무기력을 호소하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수행하도록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자가 자신 및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1단계 보편 차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 제공 후의 진로, 시간관리, 경제(돈), 대인관계, 직업, 여가 6가지 영역에 대한 인생 설계 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굴된다면 2단계 그룹 차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으로 집단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현장에서 만난다면 행동활성화, 문제해결기술, 인지재구성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대일의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는 1단계는 현장에서 후기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2단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는 2차 그룹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2016년 두드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꿈드림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개인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석사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찾아가는 상담교육(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이수할 경우에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

표 35. 프로그램 소개 개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운영인원	프로그램 운영자
1차 보편 차원	후기청소년(19~24세) 누구나	집단 교육 형태로 25명 내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쉼터 등 후기청소년을 만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전문가
2차 그룹 차원	진로, 학업, 미래 계획에 흥미와 동기가 있으나 적절한 방법을 모르는 후기청소년	집단 상담 형태로 10명 내외	꿈드림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이수한 유자격 전문가
3차 개별 차원	진로, 학업, 미래 계획에 흥미와 동기가 없고, 대인관계 어려움, 무기력 등을 호소하여 개인 상담이 필요한 후기청소년	개인 상담 형태로 1명	상담복지관련 석사졸업 이상 학력 또는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찾아가는 상담교육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이수자

프로그램 운영 시 1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정 대상자를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 내 개발된 모듈을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후기청소년의 초기 연령대인 19세의 경우에는 순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후기청소년의 진입 시기인 학교 안팎의 19세 연령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 학교밖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에서 1차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면 첫째 1차 보편 차원을 실시하여 향후 미래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이후, 1차 프로그램 참여자 중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 6가지 영역에 대한 사회성 훈련을 원하는 집단 대상자를 모집하여 집단을 운영하면서 집단 활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3차 프로그램을 개입해 나갈 수 있다.

별도 목적에 따라 운영해 나갈 경우에는 운영 형태와 운영 시간, 장소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 정보 제공과 교육의 차원이라면 1시간 내외의 집단 교육 프로그램인 1차 보편 차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집단 상담 형태로 몇주 간의 집단 활동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해 나가려면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이 좋다. 2차 그룹 차원의 경우는 각 모듈을 프로그램 운영자가 선택하여 시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3차 개별 차원은 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 대상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춰 행동활성화, 문제해결, 인지재구성의 모듈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이 높을 때는 행동활성화를 먼저 개입하여 삶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접근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에 대한 인식이 되고 변화의 의지가 나타난다면 문제해결, 인지재구성 훈련을 시행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개별 차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이 보이는 대상자를 모아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 V. 논 의

본 연구는 고용불안에 따른 불안정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었다. 특별히 후기청소년 중 다양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적용하여, 문헌연구, 포커스인터뷰,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획단계 및 구성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에 관한 문헌 및 프로그램들을 개관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비진학 고졸 청소년이 포진되어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 후기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CYS-Net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후기청소년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 개발진의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활동지 등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1차 보편 차원 프로그램은 선행 연구와 후기 청소년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히 후기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절한 지원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신 동향의 프로그램 특성과 대상, 혜택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제시된 사례를 연습하며 정보탐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비연구로서 프로그램 초안을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후기청소년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표는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60분씩 5회기의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며, 특성화고 1개 집단(8명), 자립지원시설 1개 집단(4명)으로 각각 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로, 시간관리, 경제, 대인관계, 취업, 여가로 구성된다. 예비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부산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청소년(1집단, 8명)과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한 자립지원시설 청소년(1집단, 4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 우울, 스트레스의 사전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참가자의 전반적 만족도 및 소감문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해당 후기청소년에게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대학진학과 취업 중 결정을 내리지 못한 비진학청소년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영역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단계별 프로그램 중 2단계 프로그램으로 1단계 보편적 개입을 통해 영역별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한 후기청소년에게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단계별 접근으로 인해 후기청소년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 기본심리육구 하위요인 가운데 유능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자율성, 관계성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우울 총점에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정도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도, 회기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후기청소년을 위한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은 행동활성화 훈련, 문제해결기술훈련, 인지재구성 훈련의 3모듈 8회기로 구성하였고,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5인에게 전문가 검토를 받았고, 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도, 이해도, 유의성에서 4점대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단, 프로그램 흥미도에서 보다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할 필요와 함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예시가 좀 더 제시될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예비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그룹 차원 프로그램에서 후기청소년의 기본심리육구 하위요인 중 정서에 대한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탐색이나 자기탐색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피드백이 후기청소년의 내재동기를 증진시킴을 확인할 수 있고(김아영, 이명희, 2008),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낀다는 것을(Deci & Ryan, 2000)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능성의 향상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을 자신의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권순홍, 2013)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후기청소년에게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의 우울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 참여자 및 자립지원시설 참여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직업 참여의 양 갈래 길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참여자들이 쉽게 따라하며 흥미와 재미를 포함한 활동을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참여자의 무기력한 정서와 무기력한 행동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후기청소년 자립에 초점을 맞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고,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자신의 건설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 긍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중 우울감이 높은 청소년이 우울감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자립생활기술이 낮다는 장윤정(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가 자립과 향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관련이 있다는 강현아 외(2009), 우유라, 노충래(2014) 연구 결과와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내용구성에서도 자신의 생활과 일정을 탐색할 수 있었고,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지식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험, 지역자원, 자격증 등 후기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넷째, 후기청소년들은 인지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을 보이고, 정서적으로는 우울, 무기력, 불안을 느끼며, 행동적으로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친구나 가족 등 대인 관계를 철회하고, 문제해결능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서미 외, 2017;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들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정서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배주미 외, 2010), 문헌 연구과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제안된 구성요소들을 반영하여 3차 개별차원 프로그램인 행동활성화 훈련, 문

제해결기술훈련, 인지재구성 훈련을 구성하였다. 행동활성화(BA)는 인지행동치료(CBT)나 약물치료와 같이 우울증에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Martell, Dimidjian, & Herman-Dunn, 2012),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 비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훈련과정이나 치료기법이 간단해서(Ekers, Richards, McMillan, Bland, & Gilbody, 2011)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청소년집단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가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생산적인 행동 등을 증가시켜 동기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활성화된 상태 자체가 후기청소년의 상담목표와 일치하고 있어 행동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였다. 많은 후기청소년들은 진로문제나 대인관계 등과 같이 현실적 문제를 처리하는데 미숙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며 당면과제를 회피하거나, 현실에서의 반복적인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음을 (서미 외, 2017) 감안해 볼 때, 구체적인 문제 상황별로 해결방안 찾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미래관을 보이는 은둔형 니트족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만성적으로 굳어온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삶을 더욱 취약하게 하므로 인지재구조화를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재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다양하게 개입 방법이 제시되어 후기청소년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실무자들과 후기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현장에 실효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개별차원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에 비해 단기간에 훈련이 가능하고 기법이 단순하므로 전문적 상담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특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후기청소년 하위집단이 다양하고 하위집단별 이질성이 있었다. 또한 후기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발달적 특징, 특히 심리·정서적 특징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과 같은 현실적 요소 외에 내적 변화를 이끌

어내는 치료적 요소를 선정하는데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이들에게 보다 잘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차 보편 차원, 2차 그룹 차원, 3차 개별 차원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 3차 개별 차원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3차 개입의 경우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적합도, 내용 이해도, 내용 유익성, 내용 흥미도의 항목별로 델파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각 항목별로 3차 개입 프로그램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안면 타당도 결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추후 연구에서 3차 개입이 후기 청소년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명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발굴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후기 청소년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공적 시스템에 소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 이용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에는 후기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굴 전략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차 개입이나 2차 개입은 모두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요구되는 상담자의 숙련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반면, 3차 개입은 1차 및 2차 개입에 반응하지 않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이며 치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차 개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상담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후기 청소년에 대한 3차 개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3차 개입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퇴소 청소년의 성인전화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7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구인회, 김정은 (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 권순홍 (2013).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안녕감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 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기현, 방하남 (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정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16(4), 1-27.
- 김대연, 강경찬 (1995). 고교생의 진로성숙진로포부 결정요인 탐색. **교육연구논총**, 12, 5-42.
- 김민찬 (2013). 시민인법-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필요. **국회보**, 2013년 2월호
- 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서울: 군자출판사.
- 김위정, 김양분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정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 김아영,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김영란 (2008).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문헌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81-106.
- 김영철 (2014). 대학 진학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 및 학습환경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7(3), 1-45.



- 김지경, 이광호 (2013).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관점에 관한 소고. **청소년학연구**, 21(3), 285-306.
- 김진호, 김미선, 김은경, 박지연 (2009). **긍정적 행동지원**. 서울: 시그마프레스
- 권순홍 (2013). **아동의 기본심리육구 충족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안녕감 간의 관계**. 서울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재량 (2006). 청년 니트 (NEET) 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 7 회 노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140-157.
- 노해립,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 (2015). 군 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621-642.
- 류방란, 김성식 (2006). **교육 격차: 가정 배경 과 학교 교육 의 영향력 분석**. 한국 교육 개발원.
- 방하남,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박수민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박지연 (2002). **긍정적 행동지원**. **제18회 특수교육과 학술특강**, 3-17.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박현정, 김형남, 김인복, &전승아 (2000). 청소년에서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신뢰도. **가정의학회지**, 21(2), 244-253.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2006). **후기청소년지원방안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송민경 (2009). 청소년기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51-81.
- 신세호, 강무섭, 민무순, 송혜순(1992). **고졸 비진학자의 진로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07-336.
-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7,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정호 (2012).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분석. **교육재정연구**, 21(2), 27-52.
- 여성가족부 (2016a).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b).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오민홍. (2007). NEET 의 결정요인 분석. **청년패널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오석영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요인 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31(3), 135-151.
- 오현석, 배진현, 이상은, 정현진 (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 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지역과 전망**, 22, 214-251.
- 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윤민중, 김기현, 한도희 (2015).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인호 (2011).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정서조절양식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형호, 강민정 (2008). 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9(4).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12)
- 윤형한, 신동준 (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The HRD Review**, 15(1), 36-63.
- 이가영, 차윤지, 최기홍 (2016). 우울증의 행동활성화 치료:체계적 개관.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4), 858-877.
- 이경선 (2015).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히끼꼬모리와 2차 분리-개별화. **연세상담코칭연구**, 4, 105-127.
- 이광호 (2003).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청소년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31-349.
- 이병석 (199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천순, 정태화, 이광호 (1992)
- 장운정 (2013).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 공격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근호 (2018).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특징과 과제. BOK경제연구 34호.
- 전귀연, 이성기 (2006). 부산지역 국민가족생활보장 수급가정 청소년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5, 27-51.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후기청소년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전병유, 이상일 (2003).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정인수, 남재량, 이승후(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민수 (2009).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미나·토론회**, 141-157.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채창균 (2009).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종희. (1985). 한국 무직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5). **2015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통계청 (2016). **2016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상담 매뉴얼-이루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두드림 기본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두드림 특성화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 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a).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Alexander, K. L., Eckland, B. K., & Griffin, L. J. (1975). The Wisconsin model of socioeconomic achievement: A re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2), 324-342.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15). *Emerging Adulthoo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ristopher R. Martell., Sona Dimidjian., Ruth Hermn-Dunn (2012). 우울증의 행동활성화 치료(김병수, 서호준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0).
- Cameron, S. V., & Heckman, J. J. (1998). Life cycle schooling and dynamic selection bias: Models and evidence for five cohorts of American ma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262-333.
- Cameron, S. V., & Heckman, J. J. (2001). The dynamics of educational attainment for black, hispanic, and white ma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3), 455-499.
- Carneiro, P., & Heckman, J. J. (2002). The evidence on credit constraints in post-secondary schooling. *The Economic Journal*, 112(482), 705-734.
- Ekers, D. M., Richards, D., McMillan, D., Bland, J. M., & Gilbody, S. (2011). Behavioural activation delivered by the non-specialist: Phase II randomised controlled tri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8, 66-72.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Karabel, J. (1977). Community colleges and social stratification: Submerged class conflict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232-254.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Overview of focus groups.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19.
- Halsey, A. H., Heath, A. F., & Ridge, J. M. (1980). *Origins and destinations: Family, class, and education in modern Britain*. Clarendon Pr.

- Homer, R. H., & Sugai, G. (2000). School-wide behavior supports: An emerging initiative,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2, 231-232.
- Hourani, L. L., Williams, T. V., & Kress, A. M. (2006). Stress, mental health, and job performance among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findings from the 2002 Department of Defense Health-Related Behaviors Survey. *Military medicine*, 171(9), 849-856.
- Hurrelmann, K. (2006).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9rd ed.). Weinheim: Juventa.
- Janney, R., & Snell, Me. E. (2000). *Behavioral support*. Baltimore: Brookes.
- Keniston, K. (1968). Young radicals. Notes on admitted youth. New York: Harvest.
- McCurdy, B. L., Mannella, M. C., & Eldridge, N. (2003).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urban schools: Can we prevent the escalation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5(3), 158-170
- Mennuti, R. B., Christner, R. W., & Freeman, A. (2006). An introduction to a school-based cognitive-behavioral framework.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in educational settings: *A handbook for practice*, 3-19.
- Sewell, W. H. (1971).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5), 793-80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 Yim, J. H., Bae, J. M., Choi, S. S., Kim, S. W., Hwang, H. S., & Huh, B. Y. (1996). The validity of modified Korean-translated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as instrument of stress measurement in outpatient clinic. *J Korean Acad Fam Med*, 17(1), 42-53.



## 부 록

1.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2. 후기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3.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사전/사후 조사지)
4.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개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검토 질문지





**[전환 질문]**

3. 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4.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신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주요 질문]**

5. 후기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때

	상담경험	주요 호소문제	상담배경	특성	상담(개입)내용
무업청소년					
취업준비생					
취업자					
대학재학생					
군장병					

5-1.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경험이 있으신가요?

( )

5-2. (경험이 있으신 경우) 이들의 주요 호소문제 또는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영역은 무엇이며, 이들이 상담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

5-3. (경험이 있으신 경우) 이들의 특성은 어떠했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하가 개입하신 상담 내용이나 전략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

5-4. 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각 유형별 어떤 강점을 키워줘야 할까요??

( )

5-5. 귀하가 생각하시는 각 유형별 가장 효과적인 상담적 접근을 추천해주세요  
( ex. REBT, 긍정심리학 )

6. 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대하여

6-1. 다음 표의 각 요소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귀하 의견을 체크해 주세요.

세부사항	매우 필요	필요	불필요	매우 불필요	매우 중요	중요	중요	매우 불필요
정보제공								
진로								
경제(돈)								
시간관리								
대인관계								
학업								
분노조절								
대화법								
가족관계								
정서문제 (분노, 우울, 불안)								

6-2. 그 외에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

6-3. 5번 문항의 후기청소년 유형별 프로그램 구성내용의 중요도 순서를 나열해 주세요.

	중요1	중요2	중요3	중요4	중요5	중요6	중요7	중요8
(예시)군장병	진로	경제(돈)	시간관리	대인관계	대화법	정보제공	학업	대화법
무업청소년								
취업준비생								
취업자								
대학재학생								
군장병								

7.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의 형식(시간, 방법, 접근, 참여인원 등)은 어떠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7-1.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실시 시간으로 어느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1회기-1교시/ 단 각 회기는 주1~2회 실시)  
① 1회기( )                      ② 2회기( )                      ③ 3회기( )  
④ 4회기( )                      ⑤ 5회기 이상( )                      ⑥ 6회기 이상( )

7-2. 프로그램 형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개별상담( ) ② 집단상담프로그램( ) ③ 방송교육용 단기 교육프로그램( )  
④ 학급 단위의 단기 교육프로그램( ) ⑤ 교과과정에 포함된 중·장기 프로그램( )  
⑥ 캠프나 수련활동 시에 운영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 ⑦ 기타 ( )

7-3. 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요소(시청각자료 등)를 넣으면 효과가 좋을까요?  
( )

**[마무리 질문]**

6. 후기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제안해 주실 것은 무엇인가요?  
( )

7.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

8.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도움말씀 주신다면?  
( )

☆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후기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시간	구분	질문 내용
10	도입 및 소개 질문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프로그램 내용 :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 개발배경: 청년 실업의 문제와 함께 후기청소년의 취업 및 성장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자신에 대한 간략히 소개와 심층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주세요
20분	전환 질문	1. 개인 또는 집단상담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아쉬웠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2.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웠던 점과 미래를 위해 도움받고 싶은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분	주요 질문	1. 최근 가장 좌절한 경험(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셨습니까? 2. 좌절 경험(어려움)이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일상생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3. 자신의 개인 특성이 좌절 경험(어려움)과 관계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4.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진로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5.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장소, 회기수, 소요시간, 요일, 운영형태(개인/집단) 등에서 어떤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7.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 어떤 경로로 홍보하면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예: 인터넷 등)
10분	마무리 질문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2.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사후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니 한 문장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부

### ※ 유의사항

1. 본 설문지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인지, 정서를 진단하거나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체크하기보다, 각 질문을 보고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시오.

◆ 기본정보

1. 학생의 성별에 V표 해 주십시오.

※( )안에는 연령과 생년월일을 작성해주세요.

(1) 남(연령:            / 생년월일:            ) (2) 여(연령:            / 생년월일:            )

2. 현재 학교에 재학 중 이신가요?

(1) 예 (            ) (2) 아니요 (            )

※ '예' 라고 작성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에 V표 해 주십시오.

(1) 고등학교 1학년      (2) 고등학교 2학년      (3) 고등학교 3학년  
(4) 대학교 1학년      (5) 대학교 2학년      (6) 기타 (            )

◆ 아래에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것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 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1	2	3	4	5	6
3.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1	2	3	4	5	6
4.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5.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6.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처리 방식을 따를 때가 많다.	1	2	3	4	5	6
7.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6
8.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 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1	2	3	4	5	6
9.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 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6
1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3.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6
14.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6
15.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1	2	3	4	5	6
16.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1	2	3	4	5	6
17.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1	2	3	4	5	6
18. 내 주변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 다음 질문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글의 4가지 문항 중 최근의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 )안에 V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1	①( ) 나는 슬프지 않다. ①( ) 나는 슬픔을 느낀다. ②( )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③( )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①( )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①( )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②( ) 나는 앞날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③( ) 나는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①( )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①( )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 한 것 같다. ②( )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 인 것 같다. ③( )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했다고 느낀다.

번호	문항
4	①( )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①( )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②( ) 나는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③( ) 나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짜증이 난다.
5	①( )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 나는 때때로 죄책감을 느낀다. ②( )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③( ) 나는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다.
6	①( )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①( )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②( ) 나는 곧 벌을 받을 것 같다. ③( ) 나는 현재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①(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①(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다. ②( )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③( )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①(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 나는 약점이자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②( )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③( )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①( )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①( )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③( )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①( )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①( )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②( ) 나는 요즘에 항상 운다. ③( ) 나는 울고 싶어도 나을 눈물조차 없고 울 기력도 없다.
11	①( )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①( )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귀찮아진다. ②( ) 나는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③( )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①(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①( )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②( )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③( )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번호	문항
13	①( )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①( )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②( )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③( )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14	①( )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①( ) 나는 나이 들어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된다. ②( ) 나는 내 모습이 매력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③( )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①( ) 나는 전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 나는 전처럼 일을 하려면 조금 힘이 든다. ②( )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③( ) 나는 지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6	①( )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잘 수 있다. ①( )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자지는 못한다. ②( ) 나는 평소보다 한 두시간 일찍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③( )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7	①( ) 나는 별로 피곤한지 모르고 지낸다. ①( ) 나는 전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②( ) 나는 무엇을 해도 쉽게 피곤해진다. ③( )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①( ) 내 식욕은 평소와 다를 없다. ①( ) 나는 요즘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②( ) 나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③( ) 요즘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①( ) 요즘 체중이 줄지 않았다. ①( )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②( )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③( )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20	①( ) 나는 건강에 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다. ①( )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②( )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③( )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①( ) 나는 요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①( ) 나는 전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②( ) 나는 전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③( ) 나는 이성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다음의 질문들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만든 설문입니다. 잘 읽어 보신 후에 해당항목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항상 있었다	거의 언제나 있었다	종종 여러번 있었다	간혹 있었다	전혀 없었다
1.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2.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생활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시다가 좌절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3. 지난 한 달 동안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4. 지난 한 달 동안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5. 지난 한 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잊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개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검토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검토는 '후기청소년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검토는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에 제시된 평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모듈별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가정과 직장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부

##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안내

※ 평정 기준 :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매우 부적합				매우 적합	

- (1) 내용 적합도 : 프로그램 내용이 차시의 목표에 부합하나요?
- (2) 내용 이해도 : 상담사가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하나요?
- (3) 내용 유익성 : 프로그램 내용이 후기청소년의 변화행동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 (4) 내용 흥미도 : 프로그램 내용이 후기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을까요?
- (5) 총평 : 내용에 대한 평가를 ①적합, ②수정, ③삭제 중 택일
- (6) 수정 의견 : 프로그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문항별로 그에 관한 의견을 작성

※ 프로그램 목표

	모듈	목표
1	행동활성화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후기청소년에게 스스로 보람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인생의 세부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동활성화 중재를 함으로써 이들의 무력감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킨다.
2	문제해결기술훈련	다양한 삶의 과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한 후기청소년에게 구체적인 문제상황별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지적 전략의 발달을 돕는 문제해결기술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한다.
3	인지재구성	후기청소년의 변화 행동 실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행동 실행 동기를 높이는 인지재구성 훈련을 통해서 후기청소년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개요

모듈	회기	상세 내용	
1	아웃사이드 인(Outside-In)	행동활성화치료 개념 이해	
	피로워? 즐거워!	활동기록지 검토에 따른 감정변화 나누기	
	더 높은 곳을 향해	다양한 삶의 영역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기	
	인생 퍼즐(Jigsaw) 디자인	구체화된 꿈과 희망의 세부활동 계획하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실행 가능한 활동을 선택하고 목표 달성하기	
	또 다른 시작	변화의 힘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행동 유지를 위한 다짐하기	
2	문제해결 기술훈련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소리 외침	자신의 삶의 문제해결 영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마련하기
3	인지재구성	나를 어렵게 하는 It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고 인지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모듈1> 행동활성화

회기	내용(0~5점)				총평		
	적합도	이해도	유익성	흥미도	적합	수정	삭제
1	아웃사이드 인				①	②	③
2	피로워? 즐거워!				①	②	③
3	더 높은 곳을 향해				①	②	③
4	인생 퍼즐 디자인				①	②	③
5	소확행				①	②	③
6	또 다른 시작				①	②	③
전 체					①	②	③
검 토 의 견							

**<모듈2> 문제해결기술훈련**

회기	내용(0~5점)				총평		
	적합도	이해도	유익성	흥미도	적합	수정	삭제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소리 외침					①	②	③
검 토 의 견							

**<모듈3> 인지재구성**

회기	내용(0~5점)				총평		
	적합도	이해도	유익성	흥미도	적합	수정	삭제
나를 어렵게 하는 It					①	②	③
검 토 의 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

## Abstract

---

# Development of a Life Coaching Program for Post-Adolescents

### : Focusing on Post-adolescents not Enrolled in College

Youth unemployment is a rising concern in Korean society. Many post-adolescents face uncertainties posed by housing problems, high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hardship, struggling with anxiety and depression.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policies and programs to support post-adolescents seeking for jobs, the focus leans toward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upport while less resource is available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n particular, the group least supported by social safety net or parents is those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but chose not to go to college often with no career goals or plans. In some cases, the negative soci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xperiences they go through hurt their self-esteem and future perspectives, protracting transition to healthy adulthood. In this regard, this study set out to develop a multi-level program for holistic growth of post-adolescents, thereby providing support for their independence.

In this study, the life coaching program for post-adolescents was developed through three stages based on the program development model of Kim Changdae et al. (2011): goal-sett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In the first goal-setting stage, we determined factors to include in the program design to satisfy the needs of post-adolescents by examining studies and programs on post-adolescents both at home and abroad. Based on the factors identified, we set objectives for each of the three levels of support—universal, group, and individual—after having focus-group interviews with six field experts and six post-adolescents.

In the design stage, we identified the key components of the program by drawing principles for constructing and running the program out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focus-group interviews we conducted in the goal-setting stage. On the universal level, the program focuses o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youth support programs available for post-adolescents in Korea. We planned a single session that would go on for 20-30 minutes, mainly in the form of lecture and information sharing. For the group-level program, we developed a total of six small group sessions which would involve approximately 10 post-adolescents (ages 19-24). During the first session, the participants work on the theme of career, prioritizing objectives for their dreams and establishing detailed plans for each objective. The second session focuses on time management, including a reflection on the participants' daily schedule and time spending, and development of achievable objectives for time management. The third session covers economics and finance such as the concept of the economy, reasons for learning, and financial planning for reasonable credit card spending and savings. The fourth session deal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practice building good social relations. The fifth session aims to provide support for job-seeking by exploring resume writing, job interview skills, common work etiquettes, and processes of switching jobs and resigning. The last sixth session provides guidance for leisure by inviting the participants to plan a trip and put the plan into practice. Finally on the individual level, individual counseling is provided to offer tailored support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llenges that were not addressed by universal and group level support. We designed a total of eight sessions with the three modules of behavioral activation training,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cognitive restructuring training, which can be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individual client. The behavioral activation training is intended to help post-adolescents reduce helplessness and social withdrawal while regaining vitality and activeness. The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explores seven steps of problems-solving for diverse problems post-adolescents face. The cognitive restructuring training introduces cognitive skills for restructuring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In th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stage, we ran a pilot program based on the draft of the group-level support by forming an experimental group with the post-adolescents who had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o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 three basic psychological needs, we found that the level of



competenc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program. In contrast, little impact was found for autonomy and relatedness. Secondly, while the program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drop in the depression scale scores, there was little impact on the level of stress. Third, the participants express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regarding general construction of the program, program design, manners of facilitation and instruction, fulfillment of goals, and content of each session. We also received feedback from five experts in post-adolescents about the individual-level program. The result was positive with the scores above 4 in adequacy, level of understanding, and usefulness, confirming that the program was designed appropriately.

Lastly, we produced the final version of the program after complementing objectives for each of the three levels as well as the program design and activities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pilot-run and experts' feedback. This program makes practical contribution to helping post-adolescents achieve independence and overcom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llenges.

